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 ◆ 일시: 2018년 12월 19일 13:30~18:10
- ◆ 장소: 엘타워 루비홀(B1)

일정표

전체사회: 유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3:30~14:00	참가자 등록 및 접수
14:00~14:20	개회사: 한인섭(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박정선(대한범죄학회장)
14:20~15:00	제1세션 “지역사회의 집합효능감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강태경(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발표: 이완희(가천대학교 교수) • 토론: 황성현(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15:00~15:40	제2세션 “난폭/ 보복운전의 피해와 두려움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강태경(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발표: 최수형(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강지현(울산대학교 교수) • 토론: 조수정(미국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교수)
15:40~16:10	포스터 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석수준이론에 기반한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 - 안재경(경찰대 치안대학원) · 최이문(경찰대 교수) • 데이트 폭력의 인식범위와 도움행동 요청의 중요성: 수용인정척도와 법의식조사를 중심으로 - 배민숙 · 우신철(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범죄학과) • 제도적 아노미가 살인, 폭력, 강도, 절도에 미치는 영향 - 우신철(경찰대 석사) · 박정선(경찰대 교수) • 성에 따른 범죄의 두려움 - 구본희(동의대 석사) · 박철현 동의대교수 • 집합효율성, 무질서 그리고 범죄의 두려움 - 손다래(동의대 석사) · 박철현 동의대 교수 • 범죄 피해신고, 조치, 검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요인에 대한 실증적 검증 : 도널드 블랙의 법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 서한별(경기대 석사) · 황의갑(경기대 교수) • 유년 시절 부모로부터의 학대피해경험이 성폭력동종재범에 미치는 영향: 유년 시절 부모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 안희찬(경기대 석사) · 장현석(경기대 교수)
16:10~16:20	중간휴식
16:20~17:00	제3세션 “심리적 거리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 해석수준이론의 적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황의갑(경기대학교 교수) • 발표: 김연수(동국대학교 교수) • 토론: 박성훈(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7:00~17:40	제4세션 “한국사회의 불안 : 범죄두려움의 사회적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황의갑(경기대학교 교수) • 발표: 장안식(강원대 사회통합연구센터 연구교수) • 토론: 조영오(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7:40~18:10	연구윤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내용 - 이창배 동국대학교 교수
	폐회

※ 행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ntents

개회사	1
환영사	3
제1세션 지역사회의 집합효능감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5
제2세션 난폭/ 보복운전의 피해와 두려움에 관한 연구	17
포스터세션	37
제3세션 심리적 거리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 해석수준이론의 적용가능성	47
제4세션 한국사회의 불안 : 범죄두려움의 사회적 맥락	75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대한범죄학회가 공동으로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일반 형사정책뿐만 아니라 피해자학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이미 20여 년 전부터 범죄피해조사를 전국 규모로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전국범죄피해조사(KCVS)』는 지난 2009년에 그 내용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조사규모를 확대하여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었습니다.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인 『전국범죄피해조사(KCVS)』는 범죄피해의 실태와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양질의 경험적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피해자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전국범죄피해조사(KCVS)』 자료의 정책적·학술적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활용한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5회째를 맞은 오늘 학술대회는 전국 6,100가구, 약 1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의 자료를 활용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아울러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은 '난폭/보복 운전 피해'라는 특별주제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최근 난폭운전 관련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행위로 규정되면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의 피해 조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은 우리나라 국민이 경험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피해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기초 자료 축적이라는 의의와 함께 향후 관련 조사 연구의 단초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공동 주최자인 대한범죄학회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대한범죄학회의 2018년 추계학술대회를 겸하는 오늘 학술대회의 준비를 위해 노력해주신 박정선 학회장님과 실무진, 그리고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띤 학술교류를 통해 전국범죄피해조사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학술대회 준비에 노력해주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식구들과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본 학술대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 인 섭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범죄학회 박정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각종 행사로 바쁘신 가운데 대한범죄학회의 추계학술대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추계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게 조금 늦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을 연구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주제로 공동개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범죄피해조사는 나날이 그 위상과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어가고 있습니다. 공식통계와는 달리 범죄피해조사는 범죄피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론과 정책을 입안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분석, 예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그 역할과 중요성이 커져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지역사회, 보복운전 및 범죄두려움에 관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것입니다. 각 주제들은 한국사회의 범죄피해현상을 미시적인 시각과 거시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이고도 균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구는 최근 범죄학의 가장 핫한 주제입니다. 사회자본과 집합효율성의 함양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할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차량증가와 배려심 부재에 따른 보복운전의 폐해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피해자의 사망을 부른 보복운전 가해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하였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죄두려움은 범죄학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사회학과 심리학에서 각각의 독특한 이론을 배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범죄두려움에 대한 총체적이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주제에 대해 창의적이고도 참신한 연구를 해주신 여러 발표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좋은 평론으로 응답해주신 토론자 분들에게도 심심한 고마움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열띤 토론 및 질문에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초겨울의 문턱에서 연일 계속되는 영하의 날씨가 올 겨울 혹한을 예견해주는 듯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열정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대한범죄학회 임원 및 회원여러분, 공동개최를 위해 지원해주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님과 연구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막 학문의 길에 접어들어 부푼 마음으로 미래를 꿈꾸는 대학원생 및 대학생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대한범죄학회장

박 정 선

제1세션

지역사회의 집합효능감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이 완 희 (가천대학교 교수)

지역사회의 집합효율성이 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이완희

intro

- 지역과 범죄의 관계는 오랫동안 많은 관심을 받음
- 시카고 학파의 사회해체이론(Shaw & McKay, 1942)
 - 지역사회에 따른 지역별 범죄율 차이
 - 도심의 빈곤한 소외 계층 거주지역의 범죄와 무질서
- 집합효율성(collective efficacy): 사회해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역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강조하여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소개 (Sampson, et al, 1997)
- 최근, 지역사회요인과 범죄, 범죄두려움, 범죄피해관련 연구들이 증가
- 연구의 목적
 - 지역사회의 집합효능감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literature review

- 사회해체이론(Shaw & McKay, 1942)
-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
- 이웃공동체의 생태학적 특징과 범죄
- 사회해체지역: 사회통제가 약해지고 해체된 지역

literature review

- 사회해체이론의 재부활(revitalization)
 - 로버트 샘슨(Robert Sampson, 1997)의 집합효율성(collective efficacy)
 - 거시적 관점에서의 통제이론측면에 주목
 - 비공식적 사회통제(informal social control)의 강조
- 집합효율성 이론(collective efficacy theory)
 - Sampson, Raudenbush, & Earls, 2006
 -defined as social **cohesion** among neighbors combined with their willingness to **intervene** on behalf of the common good" (Sampson, Raudenbush, & Earls, 2006, 918).
 -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신고, 도움, 훈육)
 - "지역주민과의 상호신뢰와 유대(mutual trust and solidarity among neighbors)"

method

• 연구대상

-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2017)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 및 아파트조사구의 모든 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
- 가구방문을 통해 일대일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식 병행
- 사례수: 6,100가구
- (n=13,275)

•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종속변수: 범죄피해경험
- 인구사회학적 변수: 나이, 소득, 학력
- 지역사회: 주변환경, 집합효율성, 공식통제, 범죄두려움

method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범죄피해경험
 - 지난 한해 동안 겪은 피해 경험
 - 8 items (yes, no)
- 주위환경
 - 우리 동네 주위 환경에 대해 느낀 점
 - 6 items (5-point Likert scale_negative)
 - Cronbach alpha = .830

method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집합효율성(collective efficacy)
 - 우리 동네 사람들에 대해 느낀 점
 - 지역주민들의 공통 관심사의 상호신뢰와 유대 (Sampson, et. al., 2006)
 - 7 items (5-point Likert scale_positive)
 - Cronbach alpha = .862
- 공식통제(formal social control)
 - 우리 동네 경찰에 대해 느낀 점
 - 3 items (5-point Likert scale_positive)
 - Cronbach alpha = .790
- 범죄두려움
 - 8 items (5-point Likert scale_positive)
 - Cronbach alpha = .931

method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범죄두려움
 - 8 items (5-point Likert scale_positive)
 - Cronbach alpha = .931

분석방법

- 경로분석(path analysis)
- Amos 23

results

기술통계(인구사회학적 변수)

variables		n(%)	mean	sd	min	max
성별	남자	6,219 (46.8)				
	여자	7,056 (53.2)				
나이			48.96	18.55	14	99
학력	무학	468 (3.5)				
	초등	1,402 (10.6)				
	중등	1,441 (10.9)				
	고등	4,744 (35.7)				
	대학(4년 미만)	1,946 (14.7)				
	대학(4년 이상)	3,102 (23.4)				
	대학원이상	172 (1.3)				
소득	200-500만원	7,137 (53.8)				

results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variables	mean	sd	min	max	n(%)
주변환경	12.85	3.98	6	30	
집합효능감	20.86	5.34	7	35	
공식통제	10.32	2.04	3	15	
피해경험					487 (3.6)

results

상관관계

	1	2	3	4
주변환경	1			
집합효율성	.031***	1		
공식통제	-.136***	.33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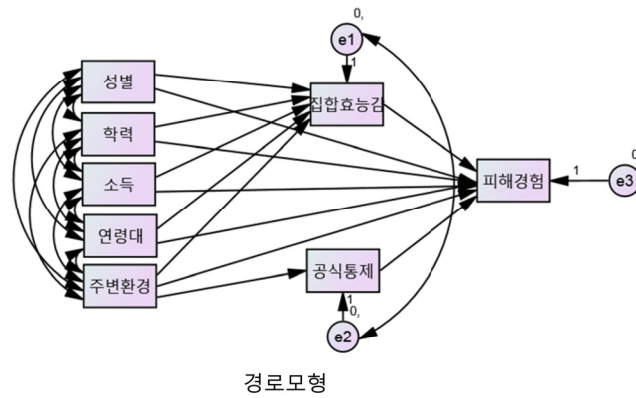
p<.05*, p<.01**, p<.001***

results

모형적합도(model fit)

	<i>df</i>	NFI	CFI	RMSEA	
Model	225.252***	4	.987	.984	.065

results



Results(여자경로모델)

		Unstandardized	Standardized	S.E.	P
집합효능감	<--- 주변환경	.058	.044	.011	***
공식통제	<--- 주변환경	-.070	-.136	.004	***
집합효능감	<--- 연령대	.720	.245	.028	***
집합효능감	<--- 학력	-.507	-.136	.038	***
집합효능감	<--- 소득	-.026	-.010	.025	.288
집합효능감	<--- 성별	.102	.010	.083	.218
피해경험전체	<--- 주변환경	.002	.030	.000	***
피해경험전체	<--- 집합효능감	.001	.016	.000	.112
피해경험전체	<--- 공식통제	-.002	-.017	.001	.060
피해경험전체	<--- 연령대	.003	.026	.001	.018
피해경험전체	<--- 학력	.007	.048	.002	***
피해경험전체	<--- 소득	.001	.011	.001	.276
피해경험전체	<--- 성별	.016	.038	.004	***

discussion

- 개인수준(성별, 학력, 나이)의 변수와 주변환경요인은 피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beta = .038, p = .000$)일수록, 학력 ($\beta = .048, p = .000$)이 높을수록, 연령대 ($\beta = .026, p = .018$)가 올라갈수록, 주변환경 ($\beta = .030, p = .000$)이 안 좋을수록 피해경험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 ($\beta = -.136, p = .000$)이 높을수록 집합효율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 ($\beta = .245, p = .000$)가 높아질수록 집합효율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변환경 이 안 좋을수록 집합효율성($\beta = .044, p = .000$)은 높아지나, 공식통제($\beta = -.136, p = .000$)는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여줬다.
- 집합효율성 과 공식통제는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discussion

- 범죄피해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영향을 받으며 지역사회의 집합효율성은 직접적으로 범죄피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주변환경은 범죄피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주변환경을 정비함으로써 범죄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결과는 초기 시카고 학파에서 주장한 사회해체이론의 도시환경(주변 환경)이 범죄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과 같다 (Shaw & McKay, 1942).
- 도심의 빈곤한 지역(소외계층)은 범죄와 무질서가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도시의 구조적인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Shaw & McKay, 1942).

discussion

- 이 연구의 결과와 같이 지역사회 집합효율성이 반드시 사회통제를 높여 범죄피해를 줄이는 것은 아니며 범죄를 오히려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Browning et al., 2004).
- 지역 주민들의 결속력이 범죄자들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이유다.
- 샘슨(Sampson, et. al., 2006)은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 즉, 집합효율성 (collective efficacy)을 소개하면서 "지역주민과의 상호신뢰와 유대(mutual trust and solidarity among neighbors)"를 강조하였다.
- 이것은 단순히 지역주민들과의 교류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간의 상호신뢰와 유대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의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Sampson, et. al., 2006).

discussion

- 한계점
 - 범죄피해경험이 전체 표본에 비해 3.6% 너무 작아 정규분포를 확보하기 어려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은 찾기 어려움
 - 조작적정의
- 미래연구
 - 성별에 따른 서로 다른 경로분석

제2세션

난폭/보복운전의 피해와 두려움에 관한 연구

최 수 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 지 현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부교수)

난폭/보복운전의 피해와 두려움에 관한 연구

최수형(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지현(울산대학교 경찰학과 부교수)

I. 서론

오늘날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의 다양한 형태의 폭력범죄 발생으로 폭력현상을 보이고 있는 사회영역은 더욱 확대되고 넓어져 한국 사회의 폭력 문제의 심각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범죄학, 사회학, 법학, 심리학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가정이나 학교 등과 같은 제도적 영역의 폭력현상이나 성폭력이나 사이버폭력과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한 폭력문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많았으나 일상생활 속의 폭력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특히, 현대사회의 특성인 도시화와 맞물려 나타나는 사회문제의 하나로 도로교통상의 폭력화 현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운전면허 소지자수가 31,665천명으로 전 인구의 61%가량에 해당하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자동차등록대수는 2,253만대이다. 이 중 승용차가 1,803만대로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승용차등록대수는 198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 승용차와 같은 개인교통수단의 수송분담율이 절반이상을 차지하여 개인교통수단의 역할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¹⁾ 즉, 자동차 소유의 보편화 현상으로 도로교통상의 경험은 개인의 일상적인 주요 생활영역임은 분명하다.

한편, OECD 주요 회원국의 인구 10만 명 당 도로교통사고사망자 수를 보면 영국(2.8명), 일본(3.5명), 독일(3.9명), 아이슬란드(4.8명) 등의 순이며 우리나라는 8.1명으로 미국(11.4명)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²⁾ 또한 대검찰청(2017)에 따르면 전체범죄에서 교통관련 범죄가 30% 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가 대중화되고 일상화되었지만 도로상의 사회규범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다양한 형태의 범위반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난폭운전과 운전자 간의 사소한 시비 등의 이유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의 보복운전 영상이 공개되고 관련 사건이 급증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³⁾ 이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 인식의

1) 통계청 e-나라지표 www.index.go.kr

2) 통계청, "OECD 주요국의 인구 10만 명 당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e-나라지표 www.index.go.kr/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083 최근검색일 2018.12.11.

3) "서울 도심서 177km 난폭운전하다 뺑소니 사고 낸 20대들"(2018.10.30.,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73286619378168&mediaCodeNo=257&OutLnkChk=Y>, 최근검색일 2018.12.5.), "난폭운전. 부실정비..도로위의

확산으로 난폭/보복운전 집중 수사 및 단속을 실시하기도 하고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⁵⁾ 하지만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이 작성한 2016년 2월부터 관리 중인 보복운전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2,168건, 2017년 2,424건으로 검거된 총 인원은 4천 57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관련 사고가 잇따라 나타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학술적 관점의 경험적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난폭과 보복운전의 피해자와 피해경험에 대한 연구는 가해자와 가해 경험 연구에 비해 빈약하다 (Ashbridge et al., 2003; Butters et al., 2006; Cavacuiti et al. 2013:1069 재인용).

또한 우리의 삶의 질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두려움 관련 연구에서 도로상의 폭력범죄인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피해에 대한 두려움 논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범죄두려움은 삶의 질의 주요 지표로 범죄현상과는 별도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우리 사회의 불안요소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형사정책에 주요 주제인 만큼(박정선·이성식, 2010:173) 오늘날 우리사회의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두려움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개인의 정신건강과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도 법질서 혼란 등의 악영향을 끼친다(Fong et al. 2001:282; Smith & King, 2013:479 재인용). 즉, 도로상의 폭력범죄인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피해는 물론이고 상대운전자나 동승자 그리고 주변의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까지 심리적,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고 해당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이에 본 논문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피해경험과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관련 논의의 발전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배경적 논의 및 연구 필요성

1. 난폭/보복운전의 개념

난폭운전(aggressive driving)은 신호위반, 과속, 지나친 경적사용에서부터 상대운전자에 대해 욕설이나

흥기대형트럭”(2018.10.1. 연합뉴스TV,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1001000300038/?did=1825m>, 최근검색일 2018.12.5.), “골목까지 따라와 7차례 박치기.. 보복운전 택시 입건”(2018.11.22.SBS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28090&plink=ORI&cooper=NAVER, 최근검색일 2018.12.5.), “왜 끼어들어. 경적 울리지 마... 작년 2400건 목숨 건 보복운전”(2018.10.25.,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025000168> 최근검색일 2018.12.14.)

4) 경찰청에서 도로상 위협을 야기하는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2016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인터넷 국민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 등 다양한 신고경로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 및 단속을 실시하였음. 또한 최근까지도 고속도로 ‘암행순찰’이나 연말 특별 단속으로 이어지고 있음

5) 한국일보. 2018.12.02. “보복운전, 사고 없어도 징역”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021565714379?did=NA&dtype=&dtypecode=> 최근검색일 2018년 12월 5일

6)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 2018.9.26., “보복운전...연간 2,300건 대형사고 잇따라, 강력단속 시급”,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092614577875825> 최근검색일 2018.12.14.

불쾌한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행위로 운전자의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행위이기는 하지만 난폭운전을 판단할 때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Vanlaar et al. 2007). 즉, 난폭운전이란, 다른 운전자들 혹은 보행자들의 이동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동을 총칭해서 규정되었으나(Shinar & Compton, 2004:429; 김상호, 2018:33에서 재인용), 이러한 개념규정은 운전자의 의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매우 가벼운 행태부터 심각하고 극단적인 유형까지 모두 포함하여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김상호, 2018:33).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2015년 8월에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2016년 2월부터 적용하여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였다. 즉, 도로교통법 난폭운전 금지조항(제46조 3)에 따르면 난폭운전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등의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협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난폭운전의 법적개념의 경우 역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난폭운전은 우리나라의 법적 개념에 따르고자 한다.

한편, 보복운전(road rage)은 운전자가 상대운전자로 인해 불쾌감을 느껴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다치게(하려고) 하는 등의 악의적인 행위이다(Smart et al., 2003:247). 보복운전은 최근에 생겨난 개념으로 지금까지 위험운전(risk driving)이나, 공격적인 운전(aggressive driving), 분노 운전(anger driving) 등의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Amett et al., 1997; Deffenbacher et al., 2003, Deffenbacher et al. 2002; Deffenbacher et al., 1994; Asbridge & Butters, 2013:603 재인용).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난폭운전은 위협추구 등의 보다 지속적인 경향성을 가질 수 있지만 보복운전은 상대방 운전자에 대한 극도의 분노로 생겨난 특수한 행위인 만큼 구분이 필요하다(Smart, Cannon, et al., 2005; Asbridge & Butters, 2013:603 재인용). 즉,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는 달리 대상이 고정적이며 상해, 협박, 폭행, 손괴 등의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보복운전은 아직까지 관련 법이나 처벌 규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자동차를 ‘흥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⁷⁾ 즉, 처벌 기준이 되는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특정인과의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1차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최수형·조영오, 2017). 실제로 끼어든 차량을 쫓아가 보복한 택시기사는 ‘특수협박죄’가 인정되었고⁸⁾ 상대 운전자를 대상으로 중상을 입혀 보복운전 최초로 실인미수 혐의가 적용되기도 하는⁹⁾ 등 보복운전에 대한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상대운전자에 대한 급제동이나 급감속

7) “KBS 굿모닝대한민국(보복운전)”, 교통사고로펌, <https://blog.naver.com/legaljki/221368141324> 최신검색일 2018.12.14
 8) SBS뉴스, 2018.11.25., “끼어든 차량 쫓아가 보복한 택시 특수협박죄 벌금형”,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30868&plink=ORI&cooper=NAVER 최신검색일 2018.12.14.
 9) 에너지경제, 2016.2.11. “난폭운전도 처벌 받는다... 법원, 보복운전에 첫 살인미수죄 적용”, http://www.ekn.kr/news/article_lab.html?no=200231 최신검색일 2018.12.14

뿐 아니라 욕설, 폭행 등을 통해 상대운전자가 위협, 협박, 폭행, 손괴 등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이해하고자 한다.

2.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피해 경험과 원인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입법으로까지 이어진 것과는 다소 대조적으로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실증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난폭운전과 보복운전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가해자 중심의 이해 연구가 대부분이다(Asbridge & Butters, 2013:604). 여기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난폭/보복운전의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피해경험과 관련하여 심리학, 정신건강학, 교통학적 관점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범죄학적 관심이 크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보복운전의 피해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젊은 사람이, 수입과 학력이 높은 사람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mart 등, 2004; Asbridge & Butters, 2013:603). 또한 음주나 약물 사용과 관련된 위험행동과 보복운전간의 관계가 있음이 나타나기도 하였다(Asbridge & Butters, 2013:603). 그리고 Smart 등(2004)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인구학적 특징 이외에 운전노출 정도와 자동차의 특징을 포함해서 살펴본 결과 장거리 운전과 혼잡한 도로는 보복운전 피해에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복운전 피해경험을 이해함에 있어서 보복운전 가해경험과 마찬가지로 우리 현대사회의 특징인 사회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보복운전 피해 경험이 도시에 거주하고 학력수준이 높고, 수입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당하는 것에 대해 혼잡스러운 도로 상황이나 바쁜 일상생활로 시간의 압박 등의 상황이 있다는 것이다(Smart 등, 2003; Smart 등, 2004). Lupton(2002)도 심층면접조사 자료를 통해 혼잡한 도로,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시간부족 등의 현대도시의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Asbridge와 Butters(2013)는 기회이론(opportunity theory)을 적용하여 사회구조적 상황과 보복운전의 피해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간 유사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중첩(overlap)적 성향에 따른 연구가 보복운전 연구에도 적용되어 진행되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실재에 있어서 동일 집단이라고 가설을 제시하기도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중첩되거나 연관성이 있어 이들 관계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Singer, 1981; McDermott, 1983; Lauriten 등, 1991; 박순진, 2009:72 재인용). 실제로 Asbridge 등(2003)과 Wichens 등(2011)에 의하면 보복운전의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보복운전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여성보다는 남성인 경우가, 연령이 많은 운전자보다는 젊은 운전자가, 수입과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운전자가, 농촌보다는 도시에 살고 있는 운전자인 경우가 더 많았고 특히, 보복운전의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후에 보복운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복운전 피해자와 가해자의 중첩성 부분을 확인하였다.

Smart 등(2003)과 Asbridge와 Butters(2013)는 보복운전 피해 행위의 심각성 수준을 상대방 운전자에 대해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경미한 수준의 행위와 차량파손이나 신체적으로 위협하였거나 실제로 신체피해가 있는 중한 피해를 입힌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보복운전의 심각성 수준별 피해경

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먼저, 보복운전 피해 행위의 발생 빈도를 심각성 수준별로 보면 보복운전 피해의 상당부분이 보복운전 가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경험이 있고 이러한 피해의 경우는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 수입이 높을수록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복운전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신체적으로 다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수입과, 학력, 혼인상태에 따라 차이가 없었고 수입이 높을수록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mart 등, 2003).

또한 최근에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피해자 집단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기도 하였다. 즉, Cavacuiti 등(2013)은 자전거이용자들이나 보행자 등의 도로이용자를 보복운전 피해대상으로 포함하여 그들의 취약성을 밝혔으며 Wichens 등(2011)은 난폭운전의 가해와 피해의 경험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며 연령별로 피해와 가해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mart 등(2007)은 지금까지 보복운전 피해에 대한 연구가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복운전피해에 대해 살펴보기도 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진행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관련 연구 자체도 많지 않다. 대학생 등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한 김상호(2018)의 연구, 교통법규 위반자 대상으로 한 김수진 등(2016)의 연구, 수도권 운전자 대상으로 한 김진희 등(2018)의 연구 등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난폭/보복운전 관련 연구는 가해 중심의 연구(송혜수·신용균·강수철 2005; 김수진·정철수·장석용, 2016; 김진희·나준휘·이동명, 2016; 신용균·류준범·강수철, 2007; 오주석·이순철, 2011; 김상호, 2018)로 피해자와 피해경험 중심의 연구는 없다. 다만,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본부의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보복운전 및 교통사고 감소 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된 보복운전 실태조사가 있었다. 이 조사는 만 19세 이상의 전국 성인 남녀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승용차 운전을 하는 1,030명을 대상으로 보복운전의 가해 및 피해 경험과 운전 습관, 보복운전의 원인 및 방지 방안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고 있다(설재훈·엄기중, 2015). 하지만 해당 조사 자료를 통해 보복운전 피해와 관련된 다양한 원인에 대한 경험적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3.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 필요성

난폭이나 보복운전에 관한 실증적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난폭/보복운전의 발생추세 및 높은 사회적 관심, 이에 따른 입법 등의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관련 선행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난폭/보복운전 피해경험과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는 미비한 수준이다. 이는 보복/난폭운전의 선행연구들은 철저히 운전자 중심, 즉 가해자 중심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난폭/보복운전의 피해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영향요인, 두려움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피해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보복/난폭운전의 피해가 다른 일반적인 폭력범죄의 피해와 어떤 차이, 혹은 공통점이 있는지를 비교하여 보다 완전하게 이 문제의 실태나 특성 규명을 가능하게 하며 관련 정책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두려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리 사회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보복/난폭운전 두려움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또 다른 측면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난폭/보복운전의 피해와 두려움에 주목하여 분석해보기로 한다. 기존의 폭력범죄 피해나 범죄두려움에서 고려한 요소는 물론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운전자의 특성 및 운전환경 특성 변수들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다룬다. 먼저, 운전자의 난폭/보복운전 피해경험에 대한 가산자료를 활용하여 난폭/보복운전 피해의 위험요인과 심각성 요인을 비교분석해 본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와 실증연구가 밝힌 보복운전 또는 위험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운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운전관련 특성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 살펴본다. 다음으로, 운전자들의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을 분석해보고 이러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해본다.

2. 연구방법

1) 분석자료와 연구대상

분석을 위해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자료를 사용하였다.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학생이나 면허시험장이나 교통관련 교육장 등에서 교육을 받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언론보도 등에서는 경찰의 공식 범죄통계나 위반을 이유로 입건된 운전자 및 피해자의 면담 자료 등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공식통계는 경찰에 신고된 범죄피해사건의 특성만을 반영한다는 점(Conway and Lohr, 1994; Lynch, Berbaum & Planty, 2002)과 난폭/보복운전의 경우 명확한 처벌규정에 대한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며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난폭/보복운전의 실태 및 특성파악을 위한 자료로서는 한계가 있다. 일부 국내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난폭/보복운전 경험을 조사하여 활용하거나(김상호, 2018)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야기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 중 도로교통공단 지부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김수진·정철수·장석용, 2016). 이들 자료는 연령이 어린 대학생과 실제 교통법규 위반자들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부 연령에만 한정된다는 단점과 조사자 모집과 샘플링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어려우며 피해자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범죄피해조사는 범죄사실의 형사사법기관에의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의 사건정보를 모두 포함하며 전국규모의 표본자료라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포함하여 피해의 예방정책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본 연구를 위해 적합한 분석자료라고 판단된다. 특히, 2016년의

범죄피해조사에서는 특별주제로 난폭/보복운전을 선정하여 대규모 일반조사로는 최초로 피해 실태 및 관련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2016년 범죄피해조사는 6,100가구의 13,257명을 대상으로 수집되었고(최수형·조영오, 2017), 이 연구에서는 이들 중 43.5%인 2016년 한 해 동안 차량(오토바이 포함)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5,769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기준 년도에 운전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배제하고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기로 한 것은, 실제 운전하는 과정에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피해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이를 인지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 분석자료로 사용하는 전국범죄피해조사는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 전체에 대해 응답을 수집한 것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응답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직접 운전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상황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2016년 한 해 동안 운전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자 하였다.

2) 주요 변인과 분석 방법

연구의 종속변수는 크게 두 가지인데, ① 운전자의 난폭/보복운전 피해여부 및 횟수와 ② 난폭/보복운전의 두려움이다.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법적 개념으로 조사표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의미를 명시하여 조사응답자 간의 개념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먼저, 난폭/보복운전의 피해는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운전 중에(혹은 차량을 이용한 이동 중에) 다른 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실제로 귀하가 사고가 날 뻔 했거나 실제로 사고가 나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면 몇 번이나 됩니까?’ 와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귀하 차량에 대한 보복운전으로 실제로 사고가 날 뻔 했거나 실제로 사고가 나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면 몇 번이나 됩니까?’로 각각 측정하였다.

두려움은 ‘귀하는 운전 중에(혹은 차량을 이용한 이동 중에)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인해 다치거나 하는 등의 피해를 당할까봐 얼마나 두렵습니까?’의 응답(1:전혀 두렵지 않다 ~ 5:매우 두렵다)으로 측정하여, 각각 난폭운전 피해의 두려움과 보복운전 피해의 두려움으로 구분하였다.

난폭/보복운전의 피해여부와 피해횟수로 측정된 심각성의 설명변수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영역은 인구학적 특성들로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과 혼인상태, 가구소득을 포함하였다. 두 번째로 ‘일상활동이론’과 ‘생활양식이론’에서 범죄피해의 영향요인으로 제시한 노출, 매력성, 감시의 부재, 그리고 잠재적 범죄자와의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Miethe & Meier, 1990) 개인관련 특성을 나타내는 독립변인을 구성하였다. 먼저 개인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노출되는 정도 및 생활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작년 한 해 동안, 한 달 평균 며칠 정도 저녁 10시 이후에 집에 들어갔습니까?”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거의 매일(1)’, ‘일주일에 2-3일(2)’, ‘일주일에 하루(3)’, ‘보름에 하루(4)’, ‘한 달에 하루(5)’, ‘거의 또는 전혀 없음(6)’으로 측정되었다. 회피행동의 정도는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닌다’,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미룬다’,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의 네 문항에 대한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그런 편이다(4)', '매우 그렇다(5)' 평균을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848). 그리고 난폭/보복운전의 폭력성을 고려하여 폭력범죄의 피해경험 여부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운전경력과 태도 등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였는데, 운전경력과 하루평균 운전시간, 교통법규 위반여부, 운전태도, 충동성과 위험추구경향, 그리고 범죄관련 대중매체에의 노출정도를 포함하였다. 먼저 운전 경력은 실제 운전한 년수로 측정하였고, 하루 평균 운전시간은 주중(월-금)과 주말(토-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2016년 한 해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이나 무인단속 카메라 등으로 단속된 경험여부를 포함하였다. 운전태도는 2016년 한 해를 기준으로 본인의 운전경험에 대한 주관적 평가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는데, 난폭운전 경향과 보복운전 경향으로 각각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난폭운전 경향을 의미하는 운전태도는 '속도를 무시한 채 운전하고 싶었다', '신호를 무시한 채 운전하고 싶었다', '차선변경을 마음대로 하고 싶었다', '중앙선 침범을 해서라도 앞질러 가고 싶었다'의 네 문항에 대한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그런 편이다(4)', '매우 그렇다(5)' 평균을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873). 보복운전의 경향을 의미하는 운전태도는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제동을 하고 싶었다' 는 문항에 대한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그런 편이다(4)', '매우 그렇다(5)'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운전자의 거주지역을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예를 들면 Shinar, 1998)에서 고려한 운전환경에 대한 변수의 하나이며 보복운전피해의 경우 농촌보다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sbridge & Butters, 2013)

또한 선행연구에서 연구자의 개인적 특성 변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점을 반영하여, 충동성과 위험추구를 포함하였다. 충동성은 '일이 복잡해지면 포기하는 편이다', '쉽게 화를 낸다', '머리 쓰는 일보다 몸으로 하는 일을 선호한다' 세 문항에 대한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그런 편이다(4)', '매우 그렇다(5)' 평균을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632). 위험성 추구는 '종종 재미삼아 위험한 일을 한다'의 5점척도 응답값을 이용하였다. 범죄관련 대중매체에의 노출정도는 '범죄 관련 뉴스나 프로그램 등을 자주 보는 편이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범죄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두 문항에 대한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그런 편이다(4)', '매우 그렇다(5)' 평균을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790).

난폭/보복운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존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였다. 지금까지 범죄두려움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성이나 연령 등의 개인적 특성은 물론 직·간접적인 범죄피해 경험에 집중하는 취약성 모델과 지역적 특성에 보다 관심을 두는 무질서 모델과 사회통합모델이 있다(박정선·이성식,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도 성별, 연령대, 교육정도, 가구수입 등의 인구학적 특징은 물론 도로상의 폭력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인 만큼 운전경력 등의 운전경험 관련 변수를 포함하였으며 도로상의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직접적인 피해경험을 포함하였고 간접적인 피해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 보도 노출 정도와 취약성 인식 변수를 포함하였다. 다만, 이 논문에서 분석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발생 한 도로상의 상황적 변수나 도로상의

무질서 혹은 집합효율성 관련 인식 변수는 없어 포함하지 못하였다. 한편, 최근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와 범죄두려움, 범죄피해간의 관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Singer 등, 2018) 본 논문에서 경찰신뢰도 변수를 포함하여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두려움을 살펴보고자 한다.

IV. 연구결과

1. 난폭/보복운전의 실태와 기술통계

먼저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난폭/보복운전 피해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범죄피해조사의 준거기간인 지난 1년 동안 난폭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5,769명 가운데 522명으로 9%를 차지한다. 즉, 난폭운전을 한 번도 당한 경험이 없는 운전자가 5,247명으로 91%였다. 한 번의 난폭운전을 경험한 운전자는 235명(4.1%), 2번은 155명(2.7%), 3번은 67명(1.2%) 등의 순서였으며 난폭운전 피해횟수의 평균은 .198 분산은 .711이다. 난폭운전의 피해경험이 있는 운전자 가운데 1번의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42%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2번의 피해경험을 가진 운전자는 29.7%, 3번은 12.8%, 4번은 4.8%등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전체 5,769명 가운데 107명, 즉 1.9%만이 피해경험이 있었고 한 번도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없는 운전자가 5,662명(98.1%)에 달했다. 한 번의 보복운전 피해를 경험한 운전자가 60명(1.0%), 2번의 피해를 당한 운전자가 32명(.6%), 3번 11명(.2%) 등이었고 보복운전 피해횟수의 평균은 .031 분산은 .078이었다. 보복운전의 피해경험이 있는 운전자 가운데 1번의 피해경험이 있는 운전자가 5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번 29.9%, 3번 10.3%, 4번 .9%등의 순이었다.

가산자료 분석 방법 가운데 학대나 범죄피해 경험과 같은 가산자료 및 범주자료를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포아송 모형이지만 포아송 모형은 종속변수의 평균과 분산이 동일한 자료에 적용되는 방법이며 이 자료와 같이 분산이 평균보다 큰 과산포 현상¹⁰⁾을 보이는 경우에는 음이항 분석모형을 권장한다(Khan, Ullah, & Nitz, 2011: 장미희·박창기, 2012, 823에서 재인용). 이 연구의 종속변수의 또 다른 특성 중 하나는 0, 즉 피해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매우 많다는 점이다. 전체 운전자 응답자 5,769명 가운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피해경험이 없다는 응답자가 각각 5,247명(91.0%), 5,662명(98.1%)이었다. 이러한 영과잉(zero-inflated) 자료를 일반 포아송 혹은 음이항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할 경우 영과잉에 대한 과소추정이 발생하고 이는 범죄피해를 경험하지 않을 확률을 과장추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모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Jang & Jang, 2004). 따라서 이러한 영과잉 자료의 경우,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을 고려하는 방식이 선호된다(Azagba & Sharaf, 2011: 장미희·박창기, 2012, 823에서 재인용).

종속변수의 분포특성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도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는 영과잉 부분에 대한 설명을 고려하여 전체 모형에 대한 설명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통계분석 전략이다.

10) 난폭운전 피해경험의 분산(0.711)>평균(0.198), 보복운전 피해경험의 분산(0.078)>평균(0.031)

전체 응답자료를 두 개의 잠정집단-①최소한 1 이상의 값을 가지는 집단에 대한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카운트모형과 ② 종속변수에서 0으로 응답한 집단에 대한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로짓모형-으로 구분하여 추정한다. 즉,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에서도 두 종류의 결과를 나타내는데 카운트모형의 계수값은 범죄피해 경험 빈도의 증가와 관련된 심각성에 미치는 위험요인에 대한 추정으로 해석하며, 로짓모형의 계수값은 범죄피해를 경험하지 않을 확률 (무발생확률, probability of non-zero)에 대한 추정이다(장미희·박창기, 2012, 823). 음이항 회귀모형과 영과잉 음이항회귀모형의 최적모형 선정은 Vuong통계검증을 통해 영과잉 음이항회귀모형을 최적모형으로 선정하여 해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과 Stata 13.0 Program을 이용하였다.

〈표 1〉 난폭/보복운전의 피해횟수

(단위: 명)

피해 횟수	난폭운전 피해			보복운전 피해		
	빈도	퍼센트	퍼센트 (피해자 중)	빈도	퍼센트	퍼센트 (피해자 중)
0	5247	91.0	-	5662	98.1	-
1	235	4.1	45.0	60	1.0	56.1
2	155	2.7	29.7	32	.6	29.9
3	67	1.2	12.8	11	.2	10.3
4	25	.4	4.8	1	.0	.9
5	21	.4	4.0	2	.0	1.9
10	18	.3	3.4	1	.0	.9
12	1	.0	.2	-	-	-
전체	5769	100	100	5769	100	100

다음으로 분석에서 사용될 주요 설명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정리한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전체의 68.3%가 남성이었고 연령대는 40대가 27.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26.9%), 30대(20.3%), 60대(13.8%)등의 순서였다. 최종학력으로 측정한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3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32.4%), 전문대학 졸업(19.1%)등의 순서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300-400만원이 2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0-500만원(20.9%), 200-300만원(16.0%), 500-600만원(14.3%)등의 순서였다.

교통법규 위반경험이 있는 운전자가 27.5%였으며, 도시거주자의 비율이 78%로 높았으며, 운전경력은 최소 1년에서 최대 60년까지로 평균은 17년 이었으며, 하루 평균 운전시간은 평일 1.59시간 주말 1.55시간으로 요일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었다.

〈표 2〉 기술통계

변수		빈도	퍼센트
성별	1 = 남성	3942	68.3
	2 = 여성	1827	31.7
연령대	1 = 1·20대	371	6.4
	2 = 30대	1172	20.3
	3 = 40대	1567	27.2

변수		빈도	퍼센트
	4 = 50대 5 = 60대 6 = 70대 이상	1549 798 312	26.9 13.8 5.4
최종학력	1 = 무학/초등학교 졸업 2 = 중학교 졸업 3 = 고등학교 졸업 4 = 전문대학(2년제) 졸업 5 = 대학교 (4년제) 졸업 6 = 대학원 이상	203 351 2113 1101 1871 130	3.5 6.1 36.6 19.1 32.4 2.3
혼인상태	1 = 미혼 2 = 기혼, 배우자 있음 3 = 기혼, 배우자 없음	771 4658 340	13.4 80.7 5.9
가구소득	1 = 월평균 100만원 미만 2 = 월평균 100-200만원 미만 3 = 월평균 200-300만원 미만 4 = 월평균 300-400만원 미만 5 = 월평균 400-500만원 미만 6 = 월평균 500-600만원 미만 7 = 월평균 600-700만원 미만 8 = 월평균 700-1000만원 미만 9 = 월평균 1000만원 이상	164 497 925 1339 1206 827 422 256 133	2.8 8.6 16.0 23.2 20.9 14.3 7.3 4.4 2.3
교통법규 위반경험	1 = 있었다 2 = 없었다	1587 4182	27.51 72.49
도시/농촌	1 = 도시 2 = 농촌	4501 1268	78.0 22.0
폭력범죄 피해	1 = 없음 2 = 있음	5750 19	99.7 .3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최대
늦은귀가	'한 달 평균 며칠 정도 저녁 10시 이후에 집에 들어갔습니까' 6점 척도값(1: 거의 매일 - 6: 거의 없다)	4.17 (1.606)	1 - 6
회피행동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피해다닌다.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 그 일을 미룬다. 밤에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네 항목의 5점 척도값(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평균	2.024 (.803)	1 - 5
운전경력	운전경력 (년)	17.00 (9.843)	1-60
하루평균 운전시간	주중 (월-금) 주말 (토-일)	1.59 (1.332) 1.55 (1.718)	1-20
운전태도: 난폭운전 경향	속도를 무시한 채 운전하고 싶었다, 신호를 무시한 채 운전하고 싶었다, 차선변경을 마음대로 하고 싶었다, 중앙선 침범을 해서라도 앞질러 가고 싶었다의 네 항목의 5점 척도값(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평균	1.793 (.780)	1-5
운전태도: 보복운전 경향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제동을 하고 싶었다의 5점 척도값(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1.415 (.642)	1-5
충동성	일이 복잡해지면 포기하는 편이다. 쉽게 화를 낸다, 머리 쓰는 일보다 몸으로 하는 일을 선호한다 세 항목의 5점 척도값(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평균	2.362 (.697)	1-5
위험추구	종종 재미삼아 위험한 일을 한다의 5점 척도값(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2.237 (.916)	1-5

변수		빈도	퍼센트
보도노출	범죄 관련 뉴스나 프로그램 등을 자주 보는 편이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범죄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두 항목의 5점 척도값(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평균	2.955 (.887)	1-5
폭행피해 두려움	누군가 나를 구타(폭행)하여 다치게 할까 봐 두려움의 5점 척도값(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2.04 (.901)	1-5
취약성 인식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범죄 피해를 당할 소지가 높다는 5점 척도값(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215 (.786)	1-5
경찰 신뢰도	우리 동네 경찰은 순찰 활동을 잘 하고 있었다,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 같았다, 범죄사건을 신고 하면, 반드시 범인을 잡아줄 것 같았다 세 항목의 5점 척도값(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평균	3.430 (.705)	1-5
계 (명)		5769	

2. 난폭/보복운전의 위험 요인과 심각성 요인

운전자의 난폭/보복운전피해 경험빈도에 대한 가산자료를 통해 개인의 피해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우도비 검증에서 유의확률이 0.001보다 작아 자료가 모형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난폭운전 피해 경험에서 1번 이상 범죄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카운트모형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들(배우자 있는 경우와 사별/이혼한 경우 모두)이, 운전태도가 난폭할수록, 충동성이 높을수록, 위험추구경향이 덜 할수록, 범죄관련 미디어보도에 노출이 많을수록, 그리고 폭력범죄의 피해를 경험한 운전자보다 그렇지 않은 운전자가 난폭운전의 피해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난폭운전 피해를 당할 경험을 0으로 응답한 집단의 로짓모형의 분석결과에서는 낮은 귀가, 운전경력과 하루평균 운전시간, 운전태도, 교통법규 위반경험과 회피행동이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낮은 귀가의 빈도수가 낮을수록, 운전경력 짧을수록, 주중운전시간은 길고 주말운전시간은 짧을수록, 운전태도가 덜 난폭할수록, 교통법규 위반경험이 없는 운전자가, 회피행동 덜 할수록 난폭운전피해를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해하기 쉽게 반대로 해석해보면, 낮은 귀가의 빈도가 높을수록, 운전경력 길수록, 주중운전시간 짧고 주말운전시간이 길수록, 운전태도가 난폭할수록, 그리고 회피행동을 더 할수록 난폭운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의 경우, 피해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소득, 운전태도, 교통법규 위반경험으로 나타났다. 운전자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운전태도가 나쁠수록 보복운전의 피해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 피해를 당할 경험을 0으로 응답한 집단의 로짓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복운전피해를 당하지 않을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자 보다는 미혼자가, 주말 하루 평균 운전시간이 짧을수록, 교통법규 위반 경험이 있는 운전자보다는 없는 운전자가, 도시 거주자 보다는 농촌에 거주하는 운전자가, 회피행동을 덜 할수록 보복운전의 피해를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반대로 해석해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미혼자 보다는 기혼자가, 주말 평균 운전시간이 길수록, 교통법규 위반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 농촌거주자에 비해 도시거주 운전자가, 회피행동을 더할수록 보복운전

의 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운전자의 난폭/보복 운전피해 경험횟수의 분석

	난폭운전 피해		보복운전 피해	
	logit model	count model	logit model	count model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성별(여)	-.390	-.134	-.254	-.671
연령대	.130	-.006	.624*	.459
교육수준	.088	.184*	.150	-.042
혼인상태-미혼				
혼인상태-기혼	.304	.572*	-1.430*	-.513
혼인상태-사별, 이혼	.357	1.091**	-.929	.874
가구소득	-.033	-.014	-.017	.217*
낮은 귀가	.103*	.084	.129	-.079
운전경력(년)	-.033**	-.018	-.021	-.031
하루평균 운전시간(주중)	.150*	.062	-.177	-.120
하루평균 운전시간(주말)	-.198**	.082	-.374*	-.040
운전 태도:난폭운전 경향	-.267**	.191*		
운전 태도:보복운전 경향			-.005	.543*
교통법규 위반경험(없음)	.542**	-.100	1.486***	1.123**
도시/농촌(농촌)	-.141	-.002	1.265*	.901
충동성	-.089	.320*	.055	.431
위험추구	-.037	-.299**	.235	.078
회피행동	-.438***	-.071	-.929***	-.215
보도 노출	.100	.187*	.046	-.060
폭력범죄 피해(있음)	-3.074	-1.839*	-2.246	-1.145
상수항	1.884*	-2.293**	.324	-4.729*
N	5769 (Non-zero=522, zero=5247)		5769 (Non-zero=107, zero=5662)	
Likelihood-ratio chisquare	45.40**		30.03*	
Vuong test Z	4.25***		3.58**	

* $p < .05$, ** $p < .01$, *** $p < .001$

3. 난폭/보복운전의 두려움

다음으로 난폭/보복운전의 두려움 수준과 이러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피해 두려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성별, 거주지역 특성(도시/농촌), 폭행피해의 두려움과 취약성 인식, 난폭과 보복운전의 피해 경험, 범죄관련 미디어보도에의 노출정도, 그리고 회피행동이였다. 구체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운전자가, 농촌에 비해 도시거주 운전자가, 폭행피해의 두려움이 높고 스스로 더 범죄에 취약하다고 느낄수록, 난폭/보복 운전의 피해경험이 있는 운전자보다는 없는 운전자가, 미디어보도에의 노출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회피행동을 많이 할수록 난폭과 보복운전의 피해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폭운전 피해 두려움		보복운전 피해 두려움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성별(여)	.152***	.034	.149***	.035
연령대	.050	.016	.027	.017
교육수준	.017	.014	.021	.015
가구소득	.012	.008	-.004	.008
혼인상태-미혼				
혼인상태-기혼	-.061	.044	-.005	.046
혼인상태-사별, 이혼	-.109	.063	-.096	.072
운전경력(년)	-.003	.002	-.002	.002
하루평균 운전시간(주중)	-.006	.012	-.004	.012
하루평균 운전시간(주말)	.020	.014	.012	.015
교통법규 위반경험(없음)	.023	.029	.052	.030
도시/농촌 (농촌)	-.064***	.032	-.141***	.034
폭행 피해경험(있음)	.609	.224	.438	.233
폭행범죄 피해두려움	.164***	.016	.167***	.017
취약성 인식	.145***	.019	.155***	.019
난폭운전 피해경험(있음)	-.331***	.046	-.326***	.048
보복운전 피해경험(있음)	-.135**	.099	-.269**	.103
보도 노출	.070***	.015	.058***	.015
회피행동	.132***	.020	.108***	.021
경찰 신뢰도	-.006	.018	.008	.019
상수항	2.565***	.242	2.869***	.252
N	5769		5769	
R-squared	0.122		.0110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이 연구는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난폭/보복 운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피해위험(발생여부)과 피해빈도(심각성)로 구분하고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난폭운전의 피해에 있어서 위험요인과 심각성요인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폭운전의 피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이나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등은 영향이 없었고, 운전관련 특성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경력이 길수록, 주중운전시간은 짧고 주말운전시간은 길수록, 난폭운전을 의미하는 운전태도가 나쁠수록, 난폭운전 피해를 당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생활양식이나 일상활동이론에서 제시한 범죄기회와 관련한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늦은 귀가와 회피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늦은 귀가의 빈도가 높을수록, 회피행동을 더 많이 할수록 난폭운전피해를 당할 위험이 높아졌다.

난폭운전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교육수준과 혼인상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운전관련 변수들 가운데는 난폭운전 태도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사별/이혼 포함)가 난폭운전의 피해빈도, 즉 심각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운전경력이나 평균운전시간, 교통법규 위반경험 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난폭운전의 태도가 나쁠수록 난폭운전 피해의 심각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태도는 난폭운전의 피해 위험과 심각성을 모두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특성이 있었다.

앞서 난폭운전의 피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늦은 귀가와 회피행동은 피해심각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운전자의 심리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충동성과 위험추구경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동성이 높을수록, 위험추구 경향은 낮을수록 난폭운전 피해의 심각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범죄관련 미디어 등에 노출이 많이 된 운전자일수록 피해의 심각성은 높은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폭력 범죄의 피해가 있는 운전자 보다는 피해경험이 없는 운전자가 난폭운전의 피해 횟수가 높았다.

보복운전의 경우에도, 피해의 위험요인과 심각성요인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의 피해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운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운데 연령과 혼인상태가 유의하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미혼자보다는 기혼자가 보복운전 피해의 위험이 높았다. 또한, 운전관련 특성 가운데 주말운전시간과 교통법규 위반경험도 영향을 미쳤는데, 농촌보다는 도시거주 운전자가, 주말 하루 평균 운전시간이 길수록, 교통법규 위반경험이 있는 경우에 보복운전 피해의 위험이 높았다. 즉, 운전환경이 보복운전의 위험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난폭운전의 위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차이가 있다.

보복운전의 피해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난 연령과 혼인상태는 그러나 보복운전의 피해 심각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소득과 운전태도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태도의 경우, 보복운전태도경향이 높을수록 피해심각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피해심각성에만 영향을 미치고 위험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 차이가 있다.

특히 이 분석에서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피해 위험을 높이는 공통요인도 발견되었는데, 주말 하루 평균 운전시간과 교통법규 위반경험, 그리고 회피행동이다. 즉, 주말 하루 평균 운전시간이 긴 운전자일수록,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경험이 있는 운전자가 그렇지 않은 운전자에 비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피해를 당할 위험을 높이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었다. 이는 기존의 보복운전 피해와 가해 중첩성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의 위험요인과 심각성요인이 차이를 보인다는 점과 둘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음이항 분석과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의 모델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로도 나타났다. 즉,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의 경우, 피해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면역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다소 구별되는 위험요인과 심각성요인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두려움 관련한 분석에서는 난폭과 보복운전의 유사성을 발견하였다. 난폭과 보복운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성별이 있었는데, 남성운전자보다는 여성운전자가 난폭과 보복운전의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범죄두려움에 관한 논의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운전자의 연령이나 교육수준, 가구소득과 혼인상태 등 다른 변인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경력이나 평균운전시간,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 운전관련 변수들도 난폭과 보복운전의 두려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거주 운전자는 농촌거주 운전자에 비해 높은 두려움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취약성 인식과 폭행범죄 피해의 두려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운전자가 스스로의 취약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회피행동을 많이 할수록, 폭행 범죄의 두려움 수준이 높을수록 난폭과 보복운전에 대한 두려움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에, 더 높은 두려움을 느낄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난폭/보복운전의 두려움을 더 낮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피해자가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보인다는 취약성가설을 주장하는 연구(Bachman 등, 2011; Freguson & Mindel, 2007; Singer 등, 2018: 3 재인용)과는 상반된 것이다. 향후 관련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응답자가 경험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피해경험이 언론보도를 통한 접한 난폭/보복운전에 비해 경미하여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기대했던 경찰신뢰도는 보복이나 난폭운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피해와 두려움을 이해함에 있어서 현대사회의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적 상황과, 시간의 압박 등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Smart 등, 2003). 또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피해와 두려움은 도로상의 경험으로 기존의 폭력범죄피해에 영향을 주는 원인 이외에 새로운 차원의 이론적 변인 개발이 시급하다. 그리고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피해경험과 두려움은 보행자와 운전자, 자전거이용자 등 도로이용자간의 상황이나 승용차, 버스 등의 차량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도로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논의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2차 조사자료 이용에 따른 측정 변인의 한계가 있었다. 즉,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차량(오토바이 포함)을 이용하면서 경험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피해 보고로 보행자 혹은 자전거 등을 이용한 차량 이용자에 비해 취약한 도로이용자의 경험을 살펴볼 수 없었고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행위에 대한 질적 심각성을 고려할 수 변수가 없었다. 또한 횡단조사의 특성상 일부 변수의 시간 순서를 명확히 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늦은 귀가 등의 일상생활이나 회피행동, 보도 노출 등은 조사 당시의 응답이므로 피해경험과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피해와 두려움에 관한 논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본 논문은 향후 관련 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두섭·기광도(1995), “교통범죄양형에 관한 실태분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상호(2018), “난폭운전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5(1), 29-52.
- 김수진·정철수·정석용(2015), “운전행동결정요인과 위험운전 행동요인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미치는 메커니즘 분석을 통한 대책마련 연구: 교통법규위반자 및 교통사고야기자를 대상으로”, 『대한교통학회지』, 34(1), 15-28
- 김진희·나준희·이동명(2016), “교통문화: 낙관적 편견, 귀인성향, 난폭운전행동”, 『문화산업연구』, 16(4), 189-195
- 박순진(2009), “청소년 폭력에 있어서 피해-가해 경험의 발전”, 『형사정책연구』, 20(1), 71-94
- 박정선·이성식(2010), “범죄두려움에 관한 다수준적 접근: 주요 모델들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21(3), 173-203
- 설재훈·엄기종(2015), “보복운전 실태조사 및 방지 방안”, 『월간교통』, 1
- 송혜수·신용균·강수철(2005), “차량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운전행동 연구(운전분노 및 교통정체를 중심으로)”, 『대한교통학회지』, 23(2), 61-73
- 신용균·류준범·강수철(2007), “난폭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대한교통학회지』, 25(4), 89-98
- 오주석·이순철(2011), “운전행동 결정요인의 구성과 위험운전행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7(2), 175-197
- 장미희·박창기(2012), “영과잉 가산자료(Zero-inflated Count Data) 분석방법을 이용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노인학대 발생과 심각성에 미치는 위험요인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42(6), 819-832.
- 최수형·조영오(2017),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Asbridge, M. & Butters, J.(2013), “Driving Frequency and Its Impact on Road Rage Offending and Victimization: A view From Oppertunity Theory”, Violence and Victims, 28, 602-816
- Asbridge, M., Smart, R. & Mann, R.E.(2003), “The “Homogamy” of Road RAge: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ization and Offending Among Agressive and Violent Moterists”, Violence and Victims, 18, 517-532
- Cavacuiti, C., Ala-Leppilampi, K. J., Mann, R.E., Govoni, R., Stoduto, G., Smart, R. & Locke, J.A.(2013), “Victim of Road Rage: A Qualitative Study of the Experiences of Motorists and Vulnerable Road Users”, Violence and Victims, 28, 1068-1084
- Conway, M. & Lohr, S. (1994), “A Longitudinal Analysis of Factors Associated with Reporting Violent Crimes to the Police”,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0, 23-39.
- Lupton, D.(2002), “Road rage: drivers’ understandings and experiences”, Journal of Sociology, 38(3), 275-290
- Lynch, J. P., Bebaum, M. L., & Planty, M. (2002), “Investigating Repeated Victimization with the NCVS”, Final Report. NCJ 193415, 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Singer, A.J., Chouhy, C., Lehmann, P.S., Walzak, J.N., Gertz, M. & Biglin, S.(2018), "Victimization, Fear of Crime, and Trust in Criminal Justice Institution: A Cross-National Analysis", *Crime and Delinquency*, 1-23
- Smart, R.G., Mann, R.E. & Stoduto, G.(2003), "The Prevalence of Road Rage",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94(4),247-250
- Smart, R.G., Stoduto, G., Mann, R.E. & Adlaf, E.M.(2004), "Road Rage Experience and Behavior: Vehicle, Exposure, and Driver Factors", *Traffic Injury Prevention*, 5, 343-348
- Smart, R.G., Stoduto, G., Adlaf E.M., Mann R.E. & Sharpley, J.M.(2007), "Road Rage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J Adolesc Health* 2007, 41(3) 277-282
- Smith, P. & King, R.D.(2013), "From road rage to everyday automotive incivility: A routine activities approach to low-level deviance", *The Sociological Quarterly*, 54, 476-500
- Vanlaar, W., Simpson, H., Mayhew, D., Robertson, R. (2007). *The Road Safety Monitor 2006: Aggressive Driving*. Traffic Injury Research Foundation. Ottawa, Canada. http://tirf.ca/wp-content/uploads/2017/02/RSM2006_AggressiveDriving_eng.pdf 최근검색일 2018.12.12
- Wickens, C.M., Mann, R.E. Stoduto, G., Ialomiteanu, A., & Smart, R.G., "Age group differences in self-reported aggressive driving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14(5), 400-412

포스터세션

- 해석수준이론에 기반한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
- 데이트 폭력의 인식범위와 도움행동 요청의 중요성
 - 수용인정척도와 법의식을 중심으로
- 제도적 아노미가 살인, 폭력, 강도, 절도에 미치는 영향
- 성에 따른 범죄의 두려움
- 집합효율성, 무질서 그리고 범죄의 두려움
- 범죄 피해신고, 조치, 검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요인에 대한 실증적 검증
 - 도널드 블랙의 법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
- 유년 시절 부모로부터의 학대피해경험이 성폭력동종재범에 미치는 영향
 - 유년 시절 부모애착의 매개효과검증 -

해석수준이론에 기반한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

안재경(경찰대학 석사) · 최이문(경찰대학 교수)

범죄두려움을 다룬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개인수준의 변인과 더불어 지역수준의 무질서, 사회통제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이미 결정되어진, 즉 통제 불가능한 요소들로 범죄두려움을 밝혀내는데 공통점이 있다. 즉 쉽게 변화하지 않는 특성들로 범죄두려움이라는 추상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과연 범죄두려움이란 변화하지 않는 요소들로만 설명가능한 현상일 뿐일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범죄두려움이란 해석과 의미의 문제를 포함하는 사회심리학적 현상이라는 인식하에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에 기반하여 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해석수준이론이란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도 심리적 거리감에 따라 해석과 인식이 달라진다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범죄두려움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는데 적합하다.

본 연구는 2016년도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수준변인 및 지역수준변인과 함께 심리적 거리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을 위계적 회귀분석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심리적 거리가 투입순서에 관계없이 범죄두려움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으로써 기능함을 알 수 있었고, 네 가지 심리적 거리 변인 중 사회적 거리와 발생확률적 거리가 유의한 수준에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성별에 따른 심리적 거리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t-검정과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한 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범죄 혹은 범죄행위를 더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범죄두려움에 관한 기존의 모델과 변인들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함과 동시에 심리적 거리감이 범죄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범죄두려움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을 시도해보고, 이에 따른 결과와 의의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데이트 폭력의 인식범위와 도움행동 요청의 중요성 - 수용인정척도와 법의식을 중심으로

배민숙·우신철(경찰대학 석사) · 박정선(경찰대학 교수)

데이트 폭력은 명백한 성폭력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도움행동 요청이나 범죄에 대한 법 인식이 타 범죄에 비해 낮으며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범죄의 가장 많은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타나는 20대 여성과 남성의 법의식과 수용인정척도 점수가 데이트 폭력이라는 범죄에 대한 인식과 도움행동 요청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 작업을 마친 독립된 두 가지의 척도를 사용하여 그 점수들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범위'와 '도움행동 요청의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데이트 경험이 있는 20대 남, 녀 100 명을 대상으로 (남 : 25, 여 : 75) 설문을 실시하였다.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설문에 응답하게 하였으며, 거주 지역에 따른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중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 사용된 척도는 파트너가 자신을 어느 정도로 수용하고 인정해 주는지를 측정하는 '한국판 수용 인정 척도'(K-Validation and Invalidation Response Scale)와 한국 법제원에서 실시한 '2015년 국민 법의식 조사연구'에서 설문으로 활용된 법의식 문항들 중 일부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독립된 두 가지 척도를 혼합하여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본 설문 이전에 사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용인정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어 문제가 없었으나(Cronbach $\alpha = .834$, KMO = .801) 법의식 문항 같은 경우는 (Cronbach $\alpha = .619$, KMO = .564) 로 파일럿 조사 시 사용하였던 척도문항을 그대로 사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2015년에 한국법제원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의식 조사연구'에서 사용된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대체하여 본 설문을 실시하였다.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을 기준으로 데이트 폭력 인식범위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여성의 인식범위가 더 넓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t = -3.612$, $p < .05$)

회귀분석을 통해서 수용인정척도와 법의식 조사도구는 데이트폭력의 인식범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 = -6.821$, $p < .05$), ($t = 63.702$, $p < .05$) 베타 값의 확인을 통해서 수용인정에 비해 법의식이 데이트폭력의 인식범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표본의 대표성과 기존에 많이 존재하지 않는 연구분야인 '데이트 폭력'에 대한 설명변수의 타당성에서 한계를 가지지만, 연구 대상으로 일반인들 중에서 데이트 폭력의 가장 많은 피해자로 보고되는 20대 남녀의 데이트 폭력 범주에 대한 인식과 법의식을 알아보는 과정을 통하여 독립된 법안 입법의 필요성을 제고 시키는 동시에 범죄 예방적 대책과 정부차원의 대처 매뉴얼 구축에 힘을 더한다.

제도적 아노미가 살인, 폭력, 강도, 절도에 미치는 영향

우신철(경찰대학 석사) · 박정선(경찰대학 교수)

1990년대 초 김영삼 정부의 규제완화, 시장 개방은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더 극적으로 심화되어 사회양극화 담론을 만들어내었다(유경준, 2011; 신광영, 2013). 사회의 양극화는 또한 계층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계기로서도 작용하였으며, 경제적인 이윤추구가 하나의 문화적 규범으로서 작동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은 메스너와 로젠펠드(Messner and Rosenfeld, 2007)가 주장한 아메리칸 드림과, 경제적 제도의 지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들이 주장한 제도적 아노미 이론에 따르면, 아메리칸드림이 목표를 위해 제도적 수단을 경시하는 아노미를 형성하고, 그러한 아노미는 경제 제도를 강조하는 효과를 가지게 함으로써, 제도적 수단이 불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리하여, 불평등은 곧 지역에 아노미를 만연시키고 사회통제를 약화시켜 범죄를 조장하게 된다.

따라서 본 고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경제적 제도 활성화 정도와 비경제적 제도의 활성화 정도가 살인, 절도, 폭력, 강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외적에 존재하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개인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통해 처해있는 현실을 바라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6년 전국 경찰서별로 종합된 범죄 유형별(살인, 폭력, 강도, 절도) 법정동 데이터를 214개 시군구의 행정동 데이터와 연결 시킨 후 조작화 하였고, 음이항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제도적 아노미와 범죄와의 영향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경제적 빈곤이 심해질수록 살인, 폭력, 강도, 절도가능성에 대해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가족해체가 심할수록 살인, 폭력, 절도가능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제도가 약화될수록 폭력, 절도가능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사회적 제도들의 공존에 대한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국내에서의 관점과 여건상, 제도적 아노미를 통해 범죄를 바라본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후속적인 연구들을 통해 제도적 아노미가 지지 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하는 바이다.

성에 따른 범죄의 두려움

구본희(동의대 석사) · 박철현(동의대 교수)

이 연구는 성에 따른 범죄의 두려움의 차이를 살펴본다. 성과 두려움 관한 이론적 논의는 취약성 가설, 간접피해경험가설, 성폭행의 두려움 가설 등이 있다. 취약성 가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신체적으로 유약한 여성은 남성들에 비해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접피해경험가설은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대중매체나 지인으로부터 더 많은 간접피해를 경험할 것이고 따라서 여성의 범죄의 두려움은 남성들에 비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은, 특히 젊은 여성들은 성폭행의 두려움을 강하게 느끼고 그 성폭행의 두려움은 다른 범죄피해의 두려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성폭행의 두려움 가설이 있다. 이 조사는 범죄피해조사 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집합효율성, 무질서 그리고 범죄의 두려움

손다래(동의대 석사) · 박철현(동의대 교수)

집합효율성, 무질서 그리고 범죄두려움은 서로 다소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관계를 호기심어린 눈으로 어림짐작하기 보다는 샴슨의 집합효율성 모델과 깨어진 창 이론을 적용한 경험적인 연구과정을 거쳐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샴슨의 집합효율성 이론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이 사회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개입의지를 보이므로 지역의 무질서가 낮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현상으로서의 지역의 무질서가 낮을수록 범죄현상으로서의 범죄두려움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윌슨 켈링의 깨어진 창 이론에 따르면, 지역무질서가 높을 때, 범죄의 두려움이 높아질 것이고 지역주민들은 지역 내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따라서 집합효율성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집합효율성과 범죄두려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논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소수의 선행연구들에서조차 집합효율성과 범죄두려움의 선형적 관계의 결과가 일관적인 방향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를 가시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2016년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탐색적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앞선 이론들과는 달리 집합효율성과 범죄두려움의 관계는 다소 달랐다. 무질서모델의 경우, 지역무질서가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왜 집합효율성과 범죄두려움의 관계가 다른 방향으로 나오는 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샴슨의 집합효율성 모델과 켈링의 깨어진 창 이론의 선후관계를 알아보고자 청소년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그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범죄 피해신고, 조치, 검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요인에 대한 실증적 검증

- 도널드 블랙의 법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

서한별(경기대 석사) · 황의갑(경기대 교수)

본 연구에서는 도널드 블랙이 주장하는 법 행동 이론에 제시되는 사회문화요인들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도 적용되어, 범죄 피해신고 결정에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 행동 중 선행연구에서 자주 다뤄진 신고뿐 만 아니라 경찰의 조치와 가해자의 검거까지 본 연구 범위에 포함하여 Black의 법 행동 이론을 다각적으로 검증하였다.

블랙은 법 작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 기하학 모델(Social Geometry Model)을 기반종적 분화(Vertical Dimension), 형적분화(Morphological Dimension), 조직(Organizational Dimension), 문화(Culture), 사회적 통제(Social Control) 등의 사회문화요인 가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블랙이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자료 중 2010년부터 2016년 범죄피해 데이터를 통합하여 활용하였으며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로 측정 가능한 종적분화, 형적분화, 문화, 사회적 통제 총 4가지 요인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종적분화 변인인 피해자 연령은 가해자 검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적분화 변인인 고용상태는 경찰의 조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가 친인척인 경우와 기타 아는 사람인 경우가 범죄 피해신고는 물론 경찰의 조치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가설에 따른 교육수준 변인은 범죄 피해신고, 경찰의 조치, 가해자 검거 중 어느 법 행동에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사회통제가설 변인 중에서 가해자 음주여부는 범죄 피해신고, 경찰의 조치, 가해자 검거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과 후속연구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유년 시절 부모로부터의 학대피해경험이 성폭력동종재범에 미치는 영향 - 유년 시절 부모애착의 매개효과검증 -

안희찬(경기대 석사) · 장현석(경기대 교수)

본 연구에서는 유년 시절 부모로부터의 학대피해경험이 부모애착을 매개로 하여 성폭력동종재범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의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범률도 비교적 높은 실정이다. 또한 성폭력범죄에 있어서는 많은 암수범죄가 존재한다. 지금까지 성폭력가해에 관한 연구는 상당수 진행되어 왔지만 성폭력재범에 대한 연구는 국외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년 시절 학대경험이 부모애착을 매개로 하여 성폭력재범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검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연구 모형과 가설을 구성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따라 정책적 제언 및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사업체 대표자의 범죄피해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류 정(경기대 석사)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전국사업체안전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기존의 범죄두려움의 모델을 바탕으로 국내 사업체의 범죄피해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보통 일반 범죄피해두려움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되었으나, 사업체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전무후무한 실정이다. 특히 사업체의 범죄피해와 그 영향이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업체가 입는 범죄피해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체가 입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들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모형, 무질서 모형, 사회통합모형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과 사업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사업체의 연 매출, 사업체규모, 사업체에서 실시하는 범죄예방활동 변수를 통제함으로서 이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제3세션

심리적 거리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 해석수준이론의 적용 가능성

김연수 (동국대학교 교수)

심리적 거리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 해석수준이론의 적용 가능성 -

2018.12.19.

동국대학교 융합보안학과

부교수 김연수

목차

- 서론
- 이론적 배경
- 연구방법
- 분석결과
- 분석결과의 논의
- 결론

서론

범죄두려움의 연구동향

- 범죄학연구의 범주에서 확장
 - 건축학, 지역학, 멀티미디어학(뇌파분석, 김용우-강행봉, 2018,2017), 공간분석(박현수, 2018), 앱개발(고은정 외, 2018) 등으로 확장
-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을 구분하는 연구 등장
 - 박현수, 2018; 오봉욱, 2018; 조상현 외, 2017; 조상현-박외병, 2017
- 1인가구 범죄두려움
 - 유진-한민경, 2018; 조현성-김상학, 2018; 안은희, 2018; 김다은-이창한, 2017
- 이타적 두려움
 - 오봉욱, 2018; 박현수, 2018; 심희섭-김혜진, 2017
- 연구대상 다양화(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연구의 배경 - 사회학적 이론의 한계

- 범죄두려움과 위험인식의 관계
 - 양자의 선후관계는 무엇인가?
 - 감정과 인식 가운데 무엇이 우선하는가?
-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의 개념적 차이
 - 다수의 연구에서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에 따라 분석결과에 차이가 발견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 범죄피해가능성과 범죄두려움 사이에서 발견되는 모순
 - 일명 범죄피해-두려움의 패러독스의 원인은 무엇일까?
 - 범죄두려움과 위험인식 사이에 개인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연구의 배경 - 개인적 호기심

- 2005년 석사학위논문을 위한 설문조사 과정
 - 일반적 범죄두려움의 원인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해 "귀신"이라는 응답이 다수 등장.
 - 두려움은 비합리적? Vs. 귀신이 나타나서 하는 짓이 결국 범죄?
- 2010년 박사학위논문 과정에서 위험해석모델에 대한 의문
 - 첫째, 회피 및 방어행동이 두려움의 원인인가 결과인가?
 - 둘째, 실생활 환경의 공식범죄율과 두려움의 정도가 일치할까?
 - 셋째, 정서-인지-행동은 심리적으로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그 순서가 있을까?
- 보다 미시적(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범죄두려움과 위험인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표_1

- 최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소비자 심리학, 행동경제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해석수준이론과 심리적 거리감 개념의 활용가능성 검토
- 범죄에 대해 개인은 어떻게 해석하고 심리적으로 경험할까?
- 범죄에 대한 해석은 심리적 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범죄에 대한 해석수준 및 심리적 거리의 매커니즘은
범죄위험인식(인지된 가능성, 영향, 통제가능성 등),
범죄에 대한 정서적 반응(걱정, 불안, 두려움 등),
범죄위험에 대한 행동적 반응(방어 & 회피)
등과 어떻게 연결 되는가?

연구목표_2

- 범죄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과 범죄두려움의 관계 모색
- 심리학적 개념을 활용한 위험인식과 범죄두려움의 관계 재설정
- 범죄에 대한 해석수준에 따라 범죄두려움 및 위험인식 사이의 영향관계에서 차이 검토
- 무질서의 범죄두려움 및 위험인식에 대한 영향은 해석수준과 관련성 확인

이론적 배경

세상을 보는 눈 : 해석수준

- 해석수준(construal level)
 -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식별
 - 벽돌공의 직업인식 : 밥벌이 vs. 생명을 구하는 일
- 상위수준해석 vs. 하위수준해석
 - 상위수준해석: 추상적, 본질적, 핵심적, 상위적, 일관적, 탈맥락적, 구조적
 - 하위수준해석: 구체적, 부차적, 표면적, 하위적, 비일관적, 맥락적, 비구조적
- 양자의 판단기준: 중심성과 종속성
 - 중심성: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속성
 - 종속성: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특성

정의준 · 유승호, 2015, 『해석수준 이론과 거리감 효과』, 커뮤니케이션북스

나무와 숲 : 심리적 거리감

- 심리적 거리감(psychological distance)
 - Now - Here - Self : 대상과 사건에 대한 판단의 준거
 - 이 기준으로부터 멀고 가까움을 식별
 - "거리감"은 특정 사건과 대상에 대한 예측과 판단, 해석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
 - 즉, 거리감은 사람의 인식, 범주화, 평가, 선택, 예측 등에 중대한 영향
 - 지금/여기에서 가까운 시간과 장소는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
 - 지금에서 멀어지는 과거나 미래는 추상적 기억이나 예측으로 (멀게) 인식
- 거리감의 4개 차원
 - 시간적(temporal), 공간적(spatial), 사회적(social), 확률적(hypothetical)

심리적 거리감(Psychological distance)_1

시간적(temporal) 거리감

- present vs. future
- 가까운 현재나 먼 미래에 있을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 표상하는 대상자의 지각된 심리적 거리를 의미
 - 먼 시간: 추상적 상위수준으로 해석
 - 가까운 시간: 구체적 하위수준의 해석 적용

공간적(spatial) 거리감

- nearby vs. far away
- 물리적으로 사물이나 대상이 자신의 근처에 있다거나 아주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있다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거리 인식을 의미
 - 먼 거리: 상위해석수준 적용
 - 가까운 거리: 하위해석수준 적용

심리적 거리감(Psychological distance)_2

사회적(social) 거리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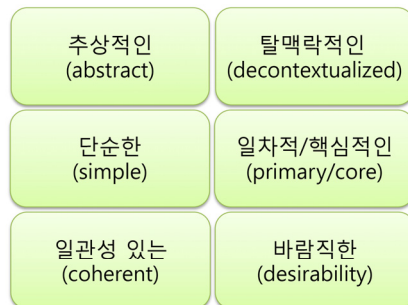
- in-group vs. out-group
- 관계적으로 멀게 느끼거나 가깝게 느끼는 사회적 관계성에 근간해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을 의미
 - 자신과 공통점 많은 타인의 행동 : 하위수준으로 해석
 - 자신과 격차 벌어질수록 : 상위수준 해석

발생확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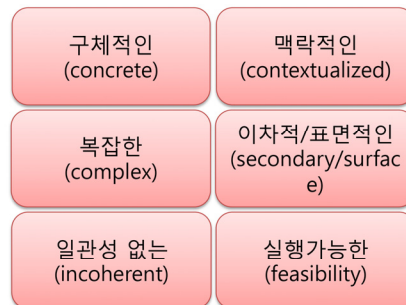
- likely vs. unlikely
- 일어날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느끼는 심리적 거리
 -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구체적 표상이 가능하여 거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며,
 - 실현가능성이 낮을수록 심리적으로 더 멀게 느낌

심리적 거리감과 해석수준

먼 심리적 거리 : 상위수준



가까운 심리적 거리 : 하위수준



범죄두려움과 위험인식, 그리고 무질서

- 범죄두려움(fear of crime)
 - Ferraro(1995)는 "범죄나 이와 연관된 상징에 대해 행위자가 결부 짓는 무서움 혹은 불안 감의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
 - 일반적 두려움(general fear)과 구체적 두려움(specific fear)으로 구분
- 위험인식(perceived risk)
 - "범죄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절차"로 설명
- 무질서(incivility)
 -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로 구분(Kohm, 2009)
 - 물리적(physical) 무질서 : 물리적 환경과 관련
 - 사회적(social) 무질서 : 지역 내 구성원의 행동양식과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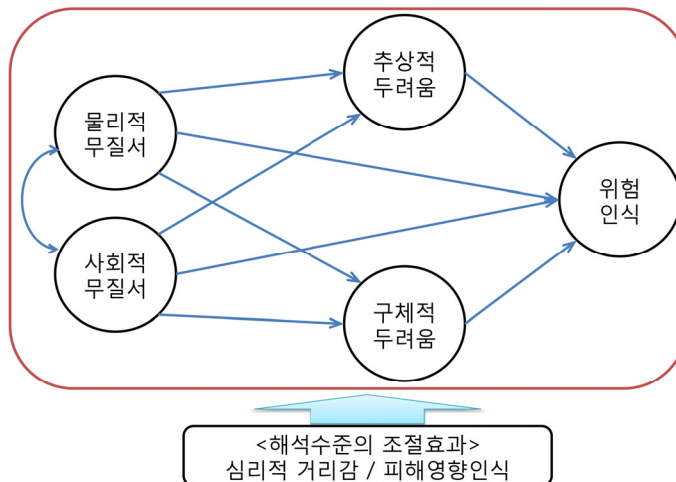
해석수준이론과 범죄두려움 및 위험인식

- 해석수준이론과 범죄두려움 및 위험인식
 - 심리적 거리가 증가할 경우 높은 해석수준으로 위험인식 및 범죄두려움 감소할 것임
 - 범죄에 대한 해석수준에 따라 범죄두려움과 위험인식에 영향 정도 달라짐
 - Signal Crimes Perspective: 일반적 범죄가 아닌 특정 중대범죄나 무질서한 사건이 위험인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는 관점. 이러한 범죄는 심리적 거리감을 감소시킴
- 해석수준과 위험인식
 - 해석수준은 구체적 상황에서 추상적 상황일 때보다 높은 위험평가
 - 상위해석수준은 극도로 발생가능성이 낮은(과대평가된) 위험평가에 유리
 - 하위해석수준은 일반적(과소평가된) 사건에 대해 더 나은 설명 제공

감정 편의적 판단과 범죄두려움 및 위험인식

- 감정편의적 판단(affect heuristic)
 - 위험에 대한 판단은 항상 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감정에 의존하는 단순하고 편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짐
 - Slovic과 동료들(2004)은 이 현상을 감정 휴리스틱으로 설명
 - 즉, 개인은 위험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논리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긍정 혹은 부정의 느낌을 위험판단의 지침으로 판단한다고 봄
 - 정의: 기분이나 감정이 세상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
- 감정적 의사결정의 두 가지 시스템
 - 경험을 해봤거나 감정이 개입된 정보를 접하는 경우 더 높은 위험인식
 - 경험이 없는 경우 감정적 반응 유발은 덜하고, 추상적 사고체계 갖게 됨
- 종합하면, **범죄두려움은 위험인식의 원인변수**가 될 수 있음!

연구모델



연구가설

- **H1. 무질서는 범죄두려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 H1a. 물리적 무질서는 추상적 두려움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 H1b. 물리적 무질서는 구체적 두려움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 H1c. 사회적 무질서는 추상적 두려움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 H1d. 사회적 무질서는 구체적 두려움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 **H2. 무질서는 위험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 H2a. 물리적 무질서는 위험인식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 H2b. 사회적 무질서는 위험인식에 정(+)
- 의 영향을 미친다.
- **H3. 범죄두려움은 위험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 H3a. 추상적 두려움은 위험인식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 H3b. 구체적 두려움은 위험인식에 정(+)
- 의 영향을 미친다.
- **H4. 범죄두려움과 위험인식의 관계는 해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 H4a. 심리적 거리감이 클수록 범죄두려움의 위험인식에 대한 영향력은 작아진다.
 - H4b. 피해영향인식이 클수록 범죄두려움의 위험인식에 대한 영향력은 커진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주요변수의 측정

- 연구대상
 - 2016년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통해 수집된 13,275명을 분석에 사용
- 범죄두려움
 - 추상적 두려움(2문항) ($\alpha=.872$) - 구체적 두려움(8문항($\alpha=.931$))
- 위험인식
 -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범죄피해를 당할 소지가 높다”(1문항, 5점 척도)
 - 단일항목적도는 제한적인 정보를 갖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뢰성을 낮게 평가함. 그러나 구성개념이 명확한 하나의 의미를 갖고 모호하지 않다면 단일측정항목으로 충분하며 피로감을 줄일 수 있어 때로는 다중항목적도보다 더 효과적임(Rossiter, 2011; Wottrich et al., 2017)

연구방법

- 조절변수
 - 심리적 거리감
 - “내가 살고 있는 동네(지역)의 범죄는 작년 한 해와 비교해볼 때, 앞으로 범죄가 증가할 것 같습니까? 감소할 것 같습니까?”(1문항, 5점 척도)
 - 피해영향인식
 - “내가 범죄피해를 당한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피해 결과가 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1문항, 5점 척도)

변수의 기술통계 및 특성

		평균	표준 오차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2.19	.007	.780	.524	-.081
	사회적 무질서	2.10	.006	.722	.437	-.020
범죄 두려움	일반적 두려움	2.29	.009	.993	.481	-.499
	구체적 두려움	2.11	.007	.762	.518	-.198
위험인식	-	2.29	.007	.858	.515	.058
심리적 거리감	-	2.96	.005	.621	-.115	.990
피해영향인식	-	2.70	.008	.933	.182	-.250

분석절차와 방법

- 분석도구: SPSS 21.0, AMOS 21.0
- 분석절차와 방법
 - 1. 주요 변인간의 Pearson 상관계수와 변인별 기술통계
 - 2. 측정모형과 구조모형 검토(1단계 측정모형분석, 2단계 구조모형 검토)
 - 3. 경로모형 적합도 판정기준: χ^2 , RMSEA, GFI, TLI, CFI, NFI 등 사용
 - 4. 조절효과 검토를 위한 다중집단 요인분석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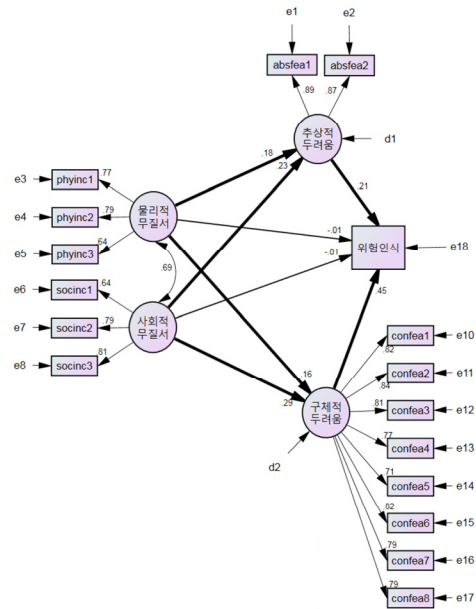
측정모형의 평가

- 확인적 요인분석 실시결과
 - $\chi^2=4953.62$, $df=98$, $p=.000$, $CMIN/DF=50.541$
 - $RMR=.026$, $GFI=.955$, $AGFI=.937$, $NFI=.960$, $TLI=.952$, $CFI=.961$, $RMSEA=.061$
 - 모델 채택을 위한 일반적 적합도 기준(RMR .05 이하, GFI , $AGFI$, NFI , TLI , CFI 는 .90 이상, $RMSEA$ 는 .08 이하)을 모두 충족

구조모형의 평가

구조모형의 평가

- $X^2=8802.651$, $df=111$, $p=.000$,
CMIN/DF=79.303
- RMR=.108, GFI=.931, AGFI=.905, NFI=.932,
TLI=.917, CFI=.932, RMSEA=.077
- 모델 채택을 위한 일반적 적합도 기준
RMR(.05이하)을 제외하고, GFI, AGFI, NFI,
TLI, CFI(.90이상), RMSEA(.08이하)를 충족



주요 경로의 유의성 검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value	가설채택여부
물리적 무질서 → 추상적 두려움	.229	.183	11.502***	H1a 채택
물리적 무질서 → 구체적 두려움	.158	.155	10.302***	H1b 채택
사회적 무질서 → 추상적 두려움	.326	.226	14.287***	H1c 채택
사회적 무질서 → 구체적 두려움	.343	.294	19.316***	H1c 채택
물리적 무질서 → 위험인식	-.009	-.008	-.549	H2a 기각
사회적 무질서 → 위험인식	-.015	-.011	-.806	H2b 기각
추상적 두려움 → 위험인식	.190	.207	22.837***	H3a 채택
구체적 두려움 → 위험인식	.516	.453	49.653***	H3b 채택

주1. ***p<.001

심리적 거리 및 해석수준의 조절효과 검토

- **H4. 범죄두려움과 위험인식의 관계는 해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 H4a. 심리적 거리감이 클수록 범죄두려움의 위험인식에 대한 영향력은 작아진다.
 - H4b. 피해영향인식이 클수록 범죄두려움의 위험인식에 대한 영향력은 커진다.
- 심리적 거리감 내지 해석수준은 범죄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통해 일정수준 파악 가능
 - 내가 살고 있는 동네(지역)의 범죄 증감추이에 대한 의견(감소/유사/증가)
 - 범죄피해 발생시 피해 결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경미/보통/심각)

심리적 거리감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요인	심리적 거리감 (지역범죄수준)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p)	사후검정
물리적 무질서	상위수준(감소)	2,473	2.11	.74	142.773 (.000)	a,b<c
	중위수준(유사)	8,841	2.15	.76		
	하위수준(증가)	1,961	2.45	.87		
사회적 무질서	상위수준	2,473	1.96	.68	231.630 (.000)	a<b<c
	중위수준	8,841	2.07	.69		
	하위수준	1,961	2.40	.81		
추상적 두려움	상위수준	2,473	2.12	.92	152.808 (.000)	a<b<c
	중위수준	8,841	2.27	.97		
	하위수준	1,961	2.63	1.11		
구체적 두려움	상위수준	2,473	1.99	.73	165.833 (.000)	a<b<c
	중위수준	8,841	2.08	.73		
	하위수준	1,961	2.38	.87		
위험인식	상위수준	2,473	2.13	.84	117.794 (.000)	a<b<c
	중위수준	8,841	2.28	.83		
	하위수준	1,961	2.52	.97		

피해영향인식수준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요인	피해영향인식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p)	사후검정
물리적 무질서	경미	5,594	2.09	.76	92.645 (.000)	a<b<c
	보통	5,252	2.21	.75		
	심각	2,429	2.34	.86		
사회적 무질서	경미	5,594	2.01	.70	94.006 (.000)	a<b<c
	보통	5,252	2.14	.70		
	심각	2,429	2.22	.79		
추상적 두려움	경미	5,594	2.01	.88	568.024 (.000)	a<b<c
	보통	5,252	2.37	.95		
	심각	2,429	2.77	1.10		
구체적 두려움	경미	5,594	1.84	.66	716.216 (.000)	a<b<c
	보통	5,252	2.24	.72		
	심각	2,429	2.43	.87		
위험인식	경미	5,594	1.88	.64	1440.546 (.000)	a<b<c
	보통	5,252	2.48	.79		
	심각	2,429	2.80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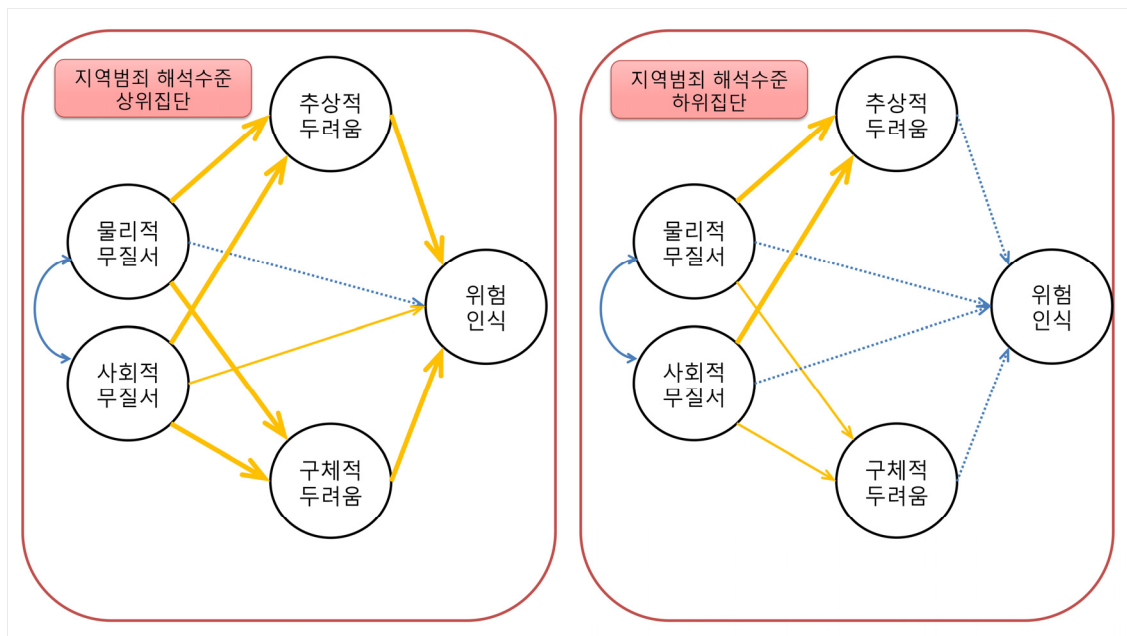
지역범죄 해석수준별 다중집단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 검토

	χ^2	Df	CFI	RMSEA	$\Delta\chi^2/df$	$\Delta\chi^2$ Sig dif
Unconstrained	2757.984	222	.942	.051		
Measurement weights (λ constrained)	2815.260	238	.941	.049	3.58	No
Structural covariances (ϕ, λ constrained)	3917.311	262	.917	.056	45.92	Yes
Measurement residuals (ϕ, λ, θ constrained)	4335.176	281	.908	.057	21.99	Yes

적합도 기준(RMSEA는 .08 이하, NFI, TLI, CFI는 .90 이상)을 모두 충족

지역범죄 해석수준별 경로계수 비교결과

	심리적 거리감 (지역범죄 해석수준)		C.R.
	상위수준(감소)	하위수준(증가)	
물리적 무질서 → 추상적 두려움	.129***	-8.063***	-3.547(no)
물리적 무질서 → 구체적 두려움	.143***	-14.094*	-1.998(no)
사회적 무질서 → 추상적 두려움	.242***	8.468***	3.595(yes)
사회적 무질서 → 구체적 두려움	.344***	14.521*	1.998(yes)
물리적 무질서 → 위험인식	.071	1.274	0.049(no)
사회적 무질서 → 위험인식	-.049*	-1.354	-0.051(no)
추상적 두려움 → 위험인식	.253***	.218	-0.226(no)
구체적 두려움 → 위험인식	.390***	.619	0.113(no)



범죄피해 영향 해석수준별 다중집단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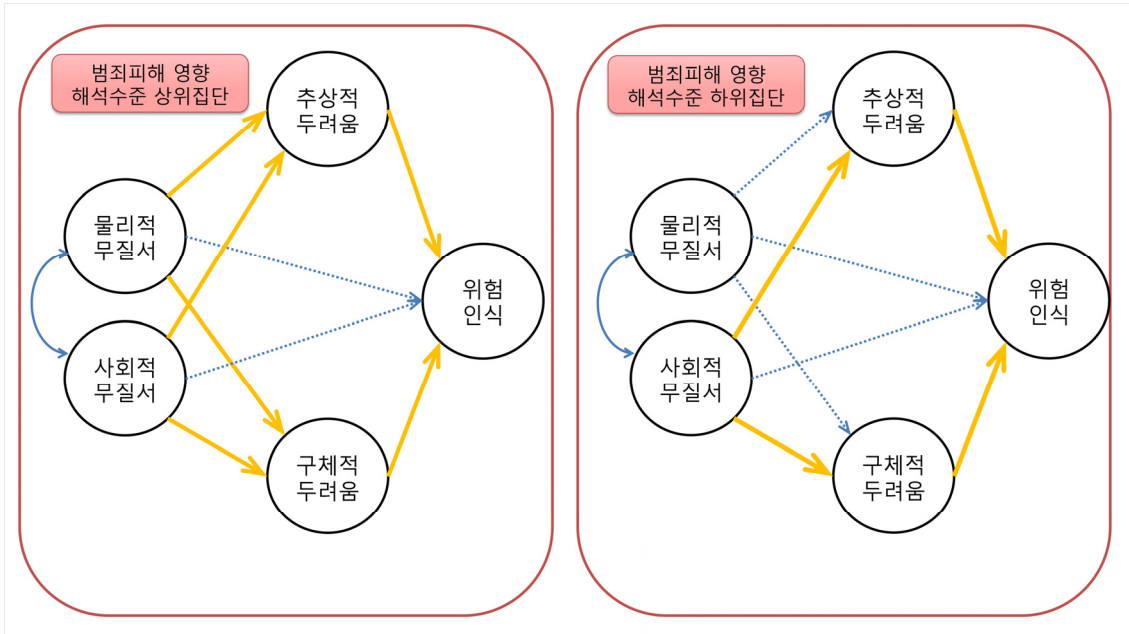
	χ^2	Df	CFI	RMSEA	$\Delta\chi^2/df$	$\Delta\chi^2$ Sig dif
Unconstrained	5271.57	222	0.93	0.053		
Measurement weights (λ constrained)	5398.495	238	0.929	0.052	7.93	No
Structural covariances (ϕ, λ constrained)	8214.85	262	0.89	0.062	117.35	Yes
Measurement residuals (ϕ, λ, θ constrained)	11805.21	281	0.841	0.072	188.97	Yes

적합도 기준(RMSEA는 .08 이하, NFI, TLI, CFI는 .90 이상)을 대부분 충족

범죄피해 영향 해석수준별 경로계수 비교결과

	심리적 거리감 (범죄피해영향 해석수준)		C.R.
	상위수준(경미)	하위수준(심각)	
물리적 무질서 → 추상적 두려움	.179***	-.022	-4.223
물리적 무질서 → 구체적 두려움	.183***	-.019	1.105
사회적 무질서 → 추상적 두려움	.123***	.509***	-4.213
사회적 무질서 → 구체적 두려움	.179***	.564***	8.408
물리적 무질서 → 위험인식	-.008	.037	1.15
사회적 무질서 → 위험인식	-.037	.026	9.569
추상적 두려움 → 위험인식	.171***	.165***	1.282
구체적 두려움 → 위험인식	.398***	.425***	2.946

임계치 = 1.965



분석결과의 논의

범죄두려움과 위험인식의 관계 재검토

- 기존 범죄두려움에 대해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것은 이해에 필요한 핵심연결고리를 못 찾았기 때문일 수 있음.
- 이 연구는 심리학의 다양한 개념을 빌어 범죄두려움 연구에 새로운 방법 시도.
- 먼저, Ferraro(1995)의 위험해석이론 등 선행연구는 대부분 범죄두려움은 위험인식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했으나, Affect Heuristic(감정편의적 판단)이라는 개념을 통해 반대의 인과관계도 가능할 수 있음을 입증.

무질서와 범죄두려움 및 위험인식의 관계 재설정

- 지역사회의 무질서와 범죄두려움 및 위험인식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무질서는 위험인식의 직접적인 영향요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추상적 두려움 내지 구체적 두려움을 매개하여 간접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
- 두려움의 유형에 상관 없이 그에 미치는 효과는 물리적 무질서 보다는 사회적 무질서가 더 컸고,

심리적 거리감과 범죄두려움 및 위험인식의 해석

-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추상적 두려움보다 구체적 두려움이 더 컸음.
- 구체적 두려움은 해석수준이론에서 하위수준의 해석으로 보다 심리적 거리감이 가까운 특징이 있는 점에서 해석수준이론의 적용가능성 확인.
- 두려움 역시 사회현상에 대한 일종의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개인이 의사판단에 감정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결과 도출.

또 다른 해석수준, 지역범죄와 피해영향에 대한 인식_1

- 이 연구는 범죄 및 범죄두려움 관련 다양한 해석수준 기준을 발굴.
- 지역범죄의 증감추이에 대한 인식과 범죄피해 시 피해(정도) 인식은 범죄 해석의 또 다른 증거.
- 두 가지 해석수준을 상-중-하로 구분하고 상위해석수준 집단과 하위 해석수준 집단을 비교.
- 지역범죄 해석수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견됨. 물리적 무질서의 경우 하위수준 사고방식과 상위수준 사고방식이 정 반대로 전개.

또 다른 해석수준, 지역범죄와 피해영향에 대한 인식_2

- 상위해석수준은 무질서의 증가로 두려움이 커지지만, 하위해석수준은 오히려 두려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무질서에 대해서는 하위해석수준의 경로계수가 훨씬 커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두려움과 위험인식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위수준은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확인되었으나, 하위해석수준에서는 영향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음.

또 다른 해석수준, 지역범죄와 피해영향에 대한 인식_3

- 범죄피해영향에 대한 해석수준에 따라서도 경미한 피해를 예상한 상위해석수준 집단은 범죄두려움에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하위해석수준에서는 물리적 무질서의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았음.
- 오히려 지역사회의 구성원에 의한 범죄적 활동을 범죄두려움으로 연결 짓는 성향이 강하였음. 이는 심리적 거리감 중 '사회적 거리감'과 일부 관련되는 내용임.

결론

연구의 의의

- CLT 접근법은 이론적, 방법론적, 정책적 가치 보유.
 - 이론적: 범죄두려움에 대한 모순적 연구결과들에 대한 설명가능성을 제시
 - 방법론적 1) 추후 범죄두려움 연구에 있어 상징적 상호주의 내지 기호학적 접근을 제안.
 - 방법론적 2) 심리학 분야의 실증적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범죄두려움 연구에 실험적 연구방법의 도입을 제안.
 - 정책적: 대중의 범죄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으로 삶의 질 악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논리 제시.

연구의 한계

- 2차 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한 조작적 정의
 - 해석수준을 명확하게 측정하는 목적으로 고안된 측정도구가 미비하여 연구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위험인식 문항이 단일측정문항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음
- 분석기법의 정교화 노력 필요
 - 제한된 시간에 분석결과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분석기법의 검토가 요구됨

제안

- 본 연구는 해석수준이론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음.
- 추후 이를 토대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많아지길 기대함.
- 특히, 사회학적 관점 일변도에서 다양한 연구방법론 및 이론과 개념의 적용이 범죄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이를 토대로 범죄두려움 연구에 하나의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며, 후속연구에서는 이 이론을 본격적으로 적용한 실험 연구나, 범죄두려움의 개념을 확장한 행동(방어, 회피)적 차원의 개념도 함께 검토하겠음.

감사합니다.

제4세션

한국사회의 불안 : 범죄두려움의 사회적 맥락

장 안 식 (강원대학교 연구교수)

한국사회의 불안: 범죄 두려움의 사회적 맥락¹⁾

장안식 (강원대학교 사회통합연구센터)

I. 들어가는 말

일반적인 의미에서 두려움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서워하며 걱정하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 또한 범죄와 관련해서 사람에게 심리적 불편함을 초래하는 반응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범죄의 두려움은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적 담론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Hale, 1996; Loader, 2008; 2009).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많은 연구는 범죄의 두려움이 개인과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며, 이러한 범죄의 부정적 결과들은 너무나도 쉽게 가해자/피해자를 넘어 전 사회로 퍼져 나간다(Skogan and Maxfield, 1981; Hale, 1996; Lee, 2007; 2009). 범죄의 두려움은 개인적 삶의 건강성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성을 갉아먹는다. 즉, 범죄의 두려움은 개인과 사회의 경계를 강화하게 하고, 운신의 폭을 제한하며,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건강성을 위협한다(Skogan, 1986; Stafford et al., 2007; Jackson and Gray, 2009).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에 만연한다면 사람들은 불안에 떨게 될 뿐 아니라 사람들 간에 불신이 고조되어 사회의 건강성을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은 위협받게 된다. 또한, 범죄의 두려움으로 인한 악순환은 더 강력한 형사처벌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지만, 더 강력한 형사처벌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더 고조시키는 악순환적 고리를 더 공고하게 만든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지역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인 설명방식은 주로 피해경험이나 개인의 취약성에 근거한 설명방식을 취한다. 취약성이나 직/간접적인 범죄 피해의 결과로서 범죄의 두려움을 설명하였던 이전의 시도와는 반대로 지역적 특성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보다 더 사회학적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적 특성을 사용하는 설명방식은 개인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반응들을 그들이 매일 매일을 살아가야만 하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설명하고자 한다(Holloway and Jefferson, 1997; Girling, Loader, and Sparks, 2000; Jackson, 2006). 즉, 이러한 설명방식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개인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있어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사회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대 사회의 다양해진 취약성과 더불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연구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불평등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몇몇의 논자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1) 2018 대한범죄학회 후기학술대회를 위해 작성한 원고입니다.

고르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며, 범죄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사회내의 불평등 구조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Pain, 2000; Stanko, 2000). 즉, 사람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배후에는 구조적 차원에서의 지역적/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취약성을 주지시키는 현대 사회에서, 급증하는 삶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불평등의 강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증대시켜 무기력감에 빠지게 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광범위한 불안을 표출하게 되고 그러한 불안은 전이된 불안의 형태로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전이된 불안으로 나타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근원에는 현실의 사회불평등적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범죄에 대한 감정들은 사회의 변화와 우리 사회의 규범과 가치들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 등으로 점철되어 있을 수 있다. 후기근대사회의 불확실성과 고도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은 사람들의 무기력감을 증대시키면서 취약성의 감정을 증폭시킬 수 있다. 또한, 사회의 여러 불평등적 요소들(소득양극화, 상대적 빈곤, 의료불평등)은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증가시켜 무기력감에 빠지게 하고 이러한 무기력감은 곧 광범위한 불안의 감정을 표출하게 할 수도 있다. 범죄 때문에 불안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범죄의 두려움은 때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그 자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삶의 질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범죄의 두려움은 단순히 범죄와 관련된 개인적 특성의 발현이라기보다는 현대인의 삶에 배태된 다양한 불안의 감정이 이입되어 파생된 것일 수도 있다(Hough, 2004; Jackson, 2004; Jackson et al., 2004; Lupton and Tulloch, 1999).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고는 한국사회에서 범죄의 두려움이 가지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context)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잠재집단의 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만성적 두려움을 겪는 집단에 속하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특성이 어떠한지 그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실제로 만성적 두려움을 겪는 이들은 소수인데 반해서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범죄의 두려움은 광풍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가족 등으로 확대되는 대리적 두려움의 형태를 살펴본다.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과 대리적 두려움의 구분을 통해서 범죄의 두려움의 광풍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러한 두려움의 특성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범죄 자체가 사회적 진공상태에서 발생하지 않듯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 사회에서 탈맥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의 특성 변인들이 개인적 특성에 미치는 차별적인 맥락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구조적 불평등에 배태된 지역적/구성적 이질성이 어떻게 개인들의 범죄 두려움 발현 동학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범죄의 두려움은 사회적 불안에 대한 대중들의 일반화된 해석의 형태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불안과 범죄의 두려움 그리고 차별, 혐오, 인정 등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범죄의 두려움이 사회적 불안정성(혹은 안정성)이 발현되어 나타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개인들의 범죄의 두려움이 어떻게 다른 이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그리고 불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Context 1: 두려움의 잠재집단 - Fear, Cautious, and No Fear²⁾

1. 두려움의 유형과 잠재집단

본 분석에서는 구체적인 두려움과 관련된 8개의 지표 문항들에 숨어 있는 최적의 잠재집단(Latent Class)의 수를 찾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즉, 본 분석에서는 범죄 두려움이라는 것을 하나의 연속변인(continuous variable)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구별되어지는 집단(categories or typologies)으로 구분/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잠재집단의 구분을 통해서 구분하는 잠재적인 집단들은 집단의 차별성을 드러내며 사람들이 총체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낮은 수준, 보통 수준, 그리고 높은 수준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각각의 집단에 속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의 구분은 잠재변인(a latent variable)라고 규정할 수 있다.

사회과학의 많은 개념들은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측정할 수 없는 개념들은 주로 관찰할 수 있는 지표(indicators)들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개념들을 관찰 가능한 변인들을 통해 측정하는 개념들을 잠재적 변인(latent variables)이라고 한다(Hagenaars and McCutcheon, 2009). 잠재적 집단 분석(Latent Class Analysis)은 주로 관찰변인들이 연속의 형태가 아닌 명목이나 서열로 측정되어진 경우 그 안에서 잠재적 유형(latent types)을 찾아낼 수 있는 요인분석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이윤석, 2007). 범죄의 두려움에 대해서 각 문항에 대해서 두려워하는가를 측정한 이항 문항의 구조를 통해서 추상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을 포괄하는 총체적 두려움에 대한 유의미한 잠재 유형(latent types)를 찾아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잠재집단 분석은 관측변인과 잠재변인의 두 종류의 범주변인과 잠재집단과 그것의 조건부 확률에 기반한다. 만약, 하나의 잠재변인(X)과 네 개의 관측변인인 범주변인 A, B, C, D를 가지고 잠재집단 분석을 한다면, 잠재집단의 확률과 조건부 확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i_{ijkl}^{ABCDX} = \pi_i^X \pi^{A|X} \pi^{B|X} \pi^{C|X} \pi^{D|X}$$

잠재집단의 확률인 π_{ijkl}^{ABCDX} 은 특정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을 나타내고, 조건부 확률을 나타내는 $\pi^{A|X}$ 는 각 관측변인에 근거해서 특정 범주에 속할 확률을 나타내준다. 다시 말해서 가장 적절한 잠재집단 모델(best latent class model)이 선정되면³⁾ 각 잠재적 집단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을 잠재적 집단 확률(latent class probability)라고 하면, 이것을 통해서 적절한 잠재적 집단의 수뿐만 아니라 각 잠재적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각 잠재적 집단이 범주변인(관측변인)에서

2) 2016년 범죄피해조사(KCVS: Korean Crime Victim Survey)자료 사용.

3) 잠재집단의 모델 선택에서는 주로 우도비 카이제곱(likelihood ratio chi-square)과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Index)가 사용된다. 주로 우도비 카이제곱은 잠재집단의 수가 많은 복잡한 모델을 선택하는 데 비해서 BIC 지수는 잠재집단의 수가 적은 단순한 모델을 선택한다. 이러한 경우의 선택의 기준은 통계적이라기보다는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기반하여 선택할 수 밖에 없다(이윤석, 2007).

어떻게 분포되는지도 알 수 있다. 즉, 잠재적 집단 모델에서 응답자는 모든 잠재적 집단에 속하는 확률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이 확률의 합은 1이 된다.

잠재적 집단 분석에서 모델의 선택은 통계적이라기보다는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성격을 띠다고 할 수 있다. 즉,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선택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모델의 선택에서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도 잠재집단의 분석을 통해서 차별적으로 구별되는 두려움의 잠재집단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 두려움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8가지의 문항과 추상적 두려움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3가지의 문항을 통해서 이러한 잠재집단을 구성할 수 있는데, 먼저 이론적으로 세 집단을 가정하고 (낮은, 보통, 높은 두려움) 어떠한 사람들이 각각의 집단에 속하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서로 차별적으로 구분되는 집단으로 구분한 후,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보다 높은 두려움을 지니는 집단에 속하게 되고, 혹은 낮은 두려움의 집단에 속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구체적 두려움에 사용되었던 문항들을 사용하여 과연 한국적 상황에서는 어떠한 두려움의 집단이 존재하는지 분류해 볼 수 있다. 잠재집단 분석을 위해 사용된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표 1〉).

〈표 1〉 잠재집단의 문항 (구체적 두려움: 문항 1~8)

문 항	
문항 1	누군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두렵다
문항 2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갈까 봐 두렵다
문항 3	누군가 나를 구타(폭행)하여 다치게 할까 봐 두렵다
문항 4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 내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렵다
문항 5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 봐 두렵다
문항 6	누군가 내 물건이나 재산을 부수거나 못쓰게 할까 봐 두렵다
문항 7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할까 봐 두렵다
문항 8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

2.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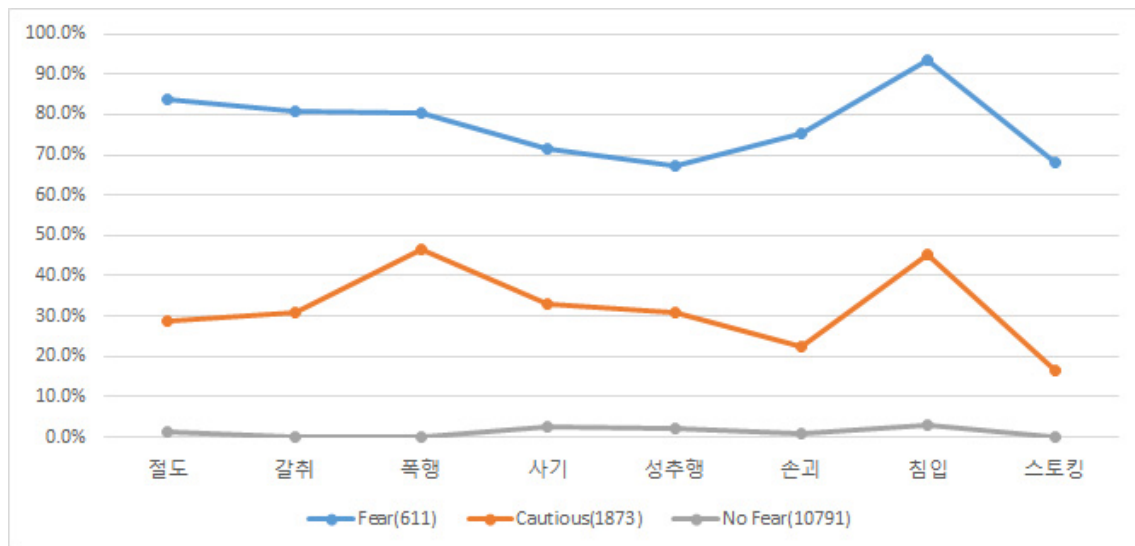
1) 잠재집단의 구분

일반적으로, 잠재집단 분석에서 적절한 집단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다. 본 분석에서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잠재적 집단의 기초적인 가정은 상, 중, 하이다. 이러한 상, 중, 하를 기반으로 구체적 두려움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잠재집단을 찾기 위해서 잠재집단분석(LCA)을 시행하였다. 잠재집단의 구분은 위 8개 문항에 대한 응답에 대한 조건부 확률(conditional probabilities)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각 문항에 대해서 두렵다(=1)와 그렇지 않다(=0)으로 구분한 후, 각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할 확률을 계산하여 잠재집단을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문항에 대해서 한

집단의 확률은 높은 확률을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다른 집단은 낮은 확률을 지속적으로 나타낸다면 그러한 확률의 차이를 기반으로 잠재집단을 구분할 수 있다. 아래의 <표 2>는 잠재집단 분석을 통해서 구분된 세 개의 서로 차별적인 집단을 보여준다.

<표 2> 잠재집단별 문항에 대한 조건부 확률

	잠재집단 1 (Fear: n=611)	잠재집단 2 (Cautious: n=1873)	잠재집단 4 (No Fear: n=10791)
문항 1	83.8%	28.7%	1.2%
문항 2	80.7%	30.7%	0.0%
문항 3	80.5%	46.4%	0.0%
문항 4	71.7%	32.8%	2.5%
문항 5	67.1%	30.8%	1.9%
문항 6	75.5%	22.5%	0.8%
문항 7	93.5%	45.4%	2.8%
문항 8	67.9%	16.4%	0.0%



[그림 1] 잠재집단별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을 이용한 잠재집단의 결과는 각 집단별로 차별적인 특징을 보여주는데, 만성적 두려움 집단(Fear)은 거의 전 문항에 걸쳐 높은 확률(67.9%에서 93.5%까지)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무의(無畏)집단(No Fear)은 모든 문항에 걸쳐서 매우 낮은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잠재집단의 구분을 통해서, 우리는 잠재집단 1(latent 1)을 만성적 두려움을 가진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고, 잠재집단 3(latent 3)은 두려움에 민감하지 않은 No Fear 집단(無畏) 집단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보통 정도의 경각심으로서의 두려움과 경계심을 갖는다고 할 때, 중간정도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집단은 잠재집단 2(latent 2)로 나타났다. 최근의 몇몇 논자들은 두려움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두려움을 순기능적인(functional) 두려움과 역기능적인(dysfunctional) 두려움으로 개념적 구분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Gray et al., 2011; Jackson and Gray, 2009). 이러한 관점에서 중간정도의 두려움을 느끼는 집단을 순기능적이고 건강한 경각심을 보여주는 일상적 두려움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잠재집단 간 보다 구체적인 비교는 아래의 기술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표 3〉 참조).

〈표 3〉 잠재집단별 두려움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절도	Fear	611	3.90	.621	3756.523	0.000
	Cautious	1873	3.01	.801		
	No Fear	10791	1.93	.696		
	합계	13275	2.17	.886		
갈취	Fear	611	3.93	.636	4765.127	0.000
	Cautious	1873	3.05	.820		
	No Fear	10791	1.81	.678		
	합계	13275	2.08	.915		
폭행	Fear	611	3.89	.613	4817.318	0.000
	Cautious	1873	3.25	.857		
	No Fear	10791	1.86	.704		
	합계	13275	2.15	.951		
사기	Fear	611	3.80	.708	3114.279	0.000
	Cautious	1873	3.01	.879		
	No Fear	10791	1.89	.766		
	합계	13275	2.14	.946		
성추행	Fear	611	3.66	.998	2631.526	0.000
	Cautious	1873	2.81	1.050		
	No Fear	10791	1.74	.772		
	합계	13275	1.98	.979		
손괴	Fear	611	3.82	.655	3579.537	0.000
	Cautious	1873	2.85	.835		
	No Fear	10791	1.81	.701		
	합계	13275	2.05	.893		
침입	Fear	611	4.08	.477	3912.748	0.000
	Cautious	1873	3.30	.849		
	No Fear	10791	1.98	.792		
	합계	13275	2.26	.995		
스토킹	Fear	611	3.65	.769	3107.189	0.000
	Cautious	1873	2.73	.840		
	No Fear	10791	1.80	.674		
	합계	13275	2.02	.853		

2) 잠재집단별 특성

먼저, 성별과 각 잠재집단의 관계는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낸다(〈표 4〉). 남성의 경우 약 87.5%(5,442명)는 'No Fear' 집단인 잠재집단 3(無畏)에 속한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도 가장 낮은 두려움을 느끼는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75.8%(5,349명)로 제일 높기는 하지만, 보통 이상의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17.5%(1,238명)이고 만성적 두려움 집단은 469명으로 약 6.6%에 이른다. 집단별 구성을 살펴보면, 만성적 두려움 집단의 대다수는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잠재집단과 성

		잠재집단1 Fear (만성적두려움)	잠재집단2 Cautious (일상적1)	잠재집단3 No Fear (無畏)	계
성별	남성	142 23.2%	635 33.9%	5442 50.4%	6219 46.8%
	여성	469 76.8%	1238 66.1%	5349 49.6%	7056 53.2%
계		611 100%	1873 100%	10791 100%	13275 100%

$\chi^2 = 318.432, p < .001$

잠재집단 1(만성적 두려움)과 2(일상적)에는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는데 반해서, 잠재집단 3(No Fear)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의 두려움에 있어 남녀 간의 차별적 경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구체적인 두려움보다는 일반적인 안전에 대한 평가인 추상적 두려움을 훨씬 더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 연령집단과 잠재집단

	연령집단별								계
	십대	20s	30s	40s	50s	60s	70s	80<	
잠재집단 1	42 5.0%	108 6.6%	99 5.3%	88 3.8%	112 4.3%	73 3.7%	62 4.3%	27 4.3%	611 4.6%
	135 16.2%	300 18.4%	255 13.7%	278 12.0%	344 13.1%	252 12.9%	215 15.0%	94 15.0%	1873 14.1%
잠재집단 2	656 78.8%	1222 75.0%	1509 81.0%	1953 84.2%	2166 82.6%	1624 83.3%	1154 80.6%	507 80.7%	10791 81.3%
	833 100.0%	1630 100.0%	1863 100.0%	2319 100.0%	2622 100.0%	1949 100.0%	1431 100.0%	628 100.0%	13275 100.0%

$\chi^2 = 73.521, p < .001$

연령과 잠재집단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 걸쳐 가장 낮은 두려움을 나타내는 집단의 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즉, 전 연령대에 걸쳐 대다수의 사람들은 범죄의 두려움을 비교적 낮게 느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성적 두려움(Fear)에 속하는 비율은 10대에서 5.0%로 20대에선 6.6%로 가장 높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만성적 두려움 집단에 속하는 비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범죄의 두려움이 감소해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표 6〉 가구수입과 잠재집단

	가구수입									계
	<100만	100 - 200만	200 - 300만	300 - 400만	400 - 500만	500 - 600만	600 - 700만	700 - 1000만	> 1000만	
1	68	67	99	111	97	89	51	25	4	611
	4.9%	4.1%	4.8%	4.1%	4.1%	5.4%	6.5%	5.2%	1.9%	4.6%
2	223	239	292	400	306	243	95	55	20	1873
	16.0%	14.8%	14.1%	14.8%	12.9%	14.8%	12.0%	11.4%	9.4%	14.1%
3	1107	1310	1679	2192	1961	1309	643	402	188	10791
	79.2%	81.1%	81.1%	81.1%	83.0%	79.8%	81.5%	83.4%	88.7%	81.3%
계	1398	1616	2070	2703	2364	1641	789	482	212	1327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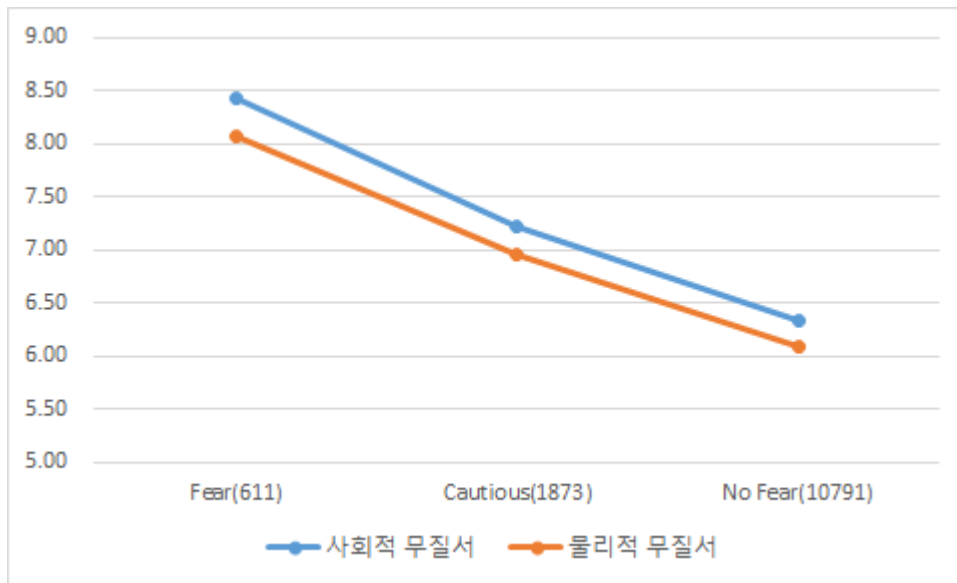
$\chi^2 = 35.474, p < .01$

본 분석에서 사용된 지역적 특성에 대한 개인의 인지 정도는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유대/결속, 비공식통제, 그리고 공식통제(경찰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지역적 특성변인들과 잠재집단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표 7〉 지역적 특성과 잠재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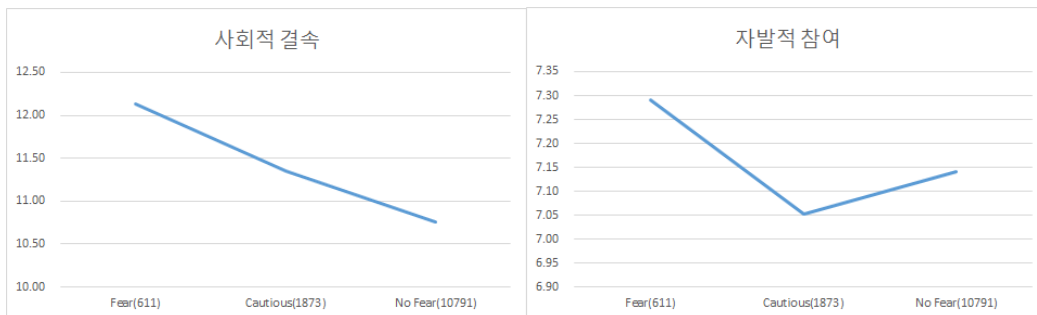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F 값 (***=p<.001)
사회적 무질서	1	611	8.42	2.735	3	334.175 ***
	2	1873	7.22	2.333	3	
	3	10791	6.33	2.247	3	
	계	13275	6.56	2.340	3	
물리적 무질서	1	611	8.07	2.677	3	359.680 ***
	2	1873	6.95	2.188	3	
	3	10791	6.09	2.058	3	
	계	13275	6.30	2.165	3	
사회적 유대/결속	1	611	12.13	3.763	4	53.421 ***
	2	1873	11.35	3.741	4	
	3	10791	10.75	3.801	4	
	계	13275	10.90	3.806	4	
자발적 참여	1	611	7.29	1.630	2	4.702 **
	2	1873	7.05	1.542	2	
	3	10791	7.14	1.761	2	
	계	13275	7.13	1.726	2	
경찰신뢰	1	611	10.48	2.436	3	15.319 ***
	2	1873	10.09	2.000	3	
	3	10791	10.36	2.024	3	
	계	13275	10.33	2.044	3	

잠재집단 별 사회적 무질서의 정도를 비교해보면(〈표 4-3-8〉 참조), 사회적 무질서의 전체 평균은 6.56(최소 3에서 최대 15)로 나타났다. 세 집단의 구분을 통해서 사회적 무질서의 정도를 살펴보면, 만성적 두려움을 느끼는 집단(latent 1)의 평균은 8.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한 경각심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는 잠재집단 2(Cautious)는 7.22이고 잠재집단 3(No Fear)의 평균은 6.33로 가장 낮았다. 세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334.175, p<.001$). 이러한 결과는 잠재집단에 따라 사회적 무질서에 대해서 상응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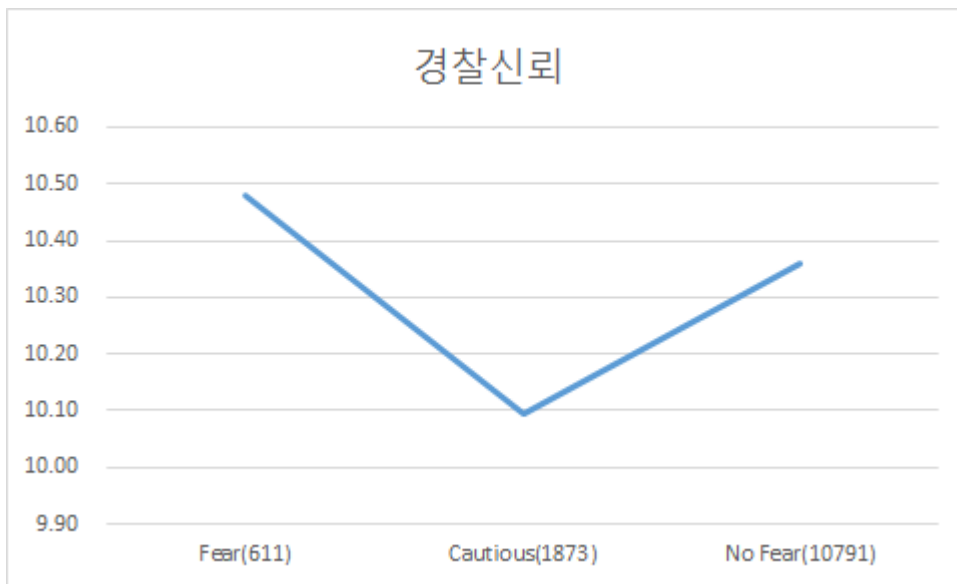
[그림 2] 잠재집단별 범죄의 두려움

물리적 무질서의 경우도 사회적 무질서의 결과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세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359.680, p<.001$). 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전체 평균은 6.30으로 나타났는데,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만성적 두려움(Fear)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고(8.07) 두려움을 가장 낮게 느끼는 No Fear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다(6.09). 결과적으로, 두려움의 정도에 따른 집단의 차이가 인지된 물리적 무질서의 정도와 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잠재집단별 집합효능감

사회적 유대(사회적 결속)의 정도에 있어, 잠재집단 간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53.421, $p < .001$). 전반적으로 두려움의 수준이 높은 혹은 보통 이상인 잠재집단 1(Fear)과 잠재집단 2(Cautious)의 사회적 유대의 정도는 두려움의 정도가 매우 낮은 집단(No Fear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잠재집단 3(No Fear)의 사회적 유대 평균은 10.75으로 세 집단 중 가장 낮게 나타났고, 두려움의 수준이 가장 높은 잠재집단 1(Fear)은 12.13으로 사회적 유대/결속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공식 통제라 할 수 있는 자발적 참여의 경우도 잠재집단 간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4.702, $p < .01$). 흥미로운 결과는 Fear집단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높았고(7.29) 그 다음으로 No Fear 집단(7.14), 그리고 Cautious집단의 자발적 참여 정도는 7.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4] 잠재집단별 경찰신뢰도

경찰 신뢰에 대한 잠재집단 간 평균 비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5.319, $p < .001$). 잠재집단 Fear 집단과 No Fear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찰 신뢰도를 나타냈다. 두려움의 수준이 다른 잠재집단은 두려움의 수준이 서로 다른 질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집단인데 지역 만족도가 극단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지역적 특성과 잠재집단의 구분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면,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그리고 사회적 결속 등의 지역적 특성은 두려움의 정도와 일정한 경향성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자발적 참여(비공식통제)와 경찰에 대한 신뢰도와 같은 지역적 특성들은 비슷한 경향을 공유하지만 그러한 경향이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즉, 이러한 지역적 특성의 정도에 따라 개인적 특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나타날 개연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3) 잠재집단 결정요인

서로 차별적인 특성을 보이는 각 잠재집단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8〉). 일상적인 조심성을 보이는 잠재집단 2(Cautious)를 참조 범주로 하고 다항로짓분석을 통해서 각 잠재집단への 소속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지역적 특성 변인들의 각 잠재집단의 소속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성별은 모든 잠재집단의 소속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데, 여성일수록 일상적 조심성의 집단(Cautious) 보다는 두려움 집단(Fear)에 속하게 할 오즈는 약 72% 증가하고, No Fear 집단에 속할 오즈는 약 5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일수록 더욱 더 두려움이 높은 집단에 속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연령대의 효과는 부적이라 할 수 있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Fear' 집단에 속할 확률은 낮아지고, 'No Fear' 집단에 속할 확률 역시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잠재집단 결정요인(다항로짓분석)

	B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Exp(B)	
Fear	절편	-4.842	.359	182.032	.000	
	성별(여성=1)	.547	.109	25.085	.000	1.728
	연령대	-.070	.027	6.440	.011	.933
	사회적 무질서	.118	.023	25.348	.000	1.125
	물리적 무질서	.149	.025	35.088	.000	1.160
	사회적 결속	.058	.016	12.852	.000	1.060
	자발적 참여	.020	.034	.345	.557	1.020
	경찰 신뢰	.075	.025	9.027	.003	1.078
No Fear	절편	3.178	.188	286.037	.000	
	성별(여성=1)	-.698	.054	170.247	.000	.497
	연령대	.070	.015	21.742	.000	1.072
	사회적 무질서	-.076	.013	32.870	.000	.927
	물리적 무질서	-.147	.014	105.933	.000	.864
	사회적 결속	-.072	.009	71.546	.000	.931
	자발적 참여	.052	.017	9.216	.002	1.053
	경찰 신뢰	.055	.014	16.497	.000	1.057

a. 참조 범주=잠재집단 2(Cautious)

지역적 특성 변인들 중에서 지역의 무질서 관련 변인들은 일관적으로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가 증가할 때, '보통의 경각심' 보다는 '두려움 Fear'에 속할 오즈는 높이고 'No Fear'에 속할 오즈는 낮추는 일관적인 영향을 보인다. 잠재집단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에서 가장 흥미로운 변수 중 하나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라 할 수 있다. 개인이 느끼는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수록 그 영향은 양방향성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보통' 보다는 'Fear'나 'No Fear'에 속할 오즈를 동시에 높인다. 즉, 경찰에 대한 신뢰가 두려움을 높일수도 혹은 더 낮출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3. 소 결

잠재집단에 대한 다항로짓분석의 결과는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들의 일반적인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집단의 구분에 대한 분석에서도 개별 변인들의 영향은 일관적인 영향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별(여성)의 영향을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연령대는 감소시키고,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무질서의 영향을 범죄의 두려움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잠재집단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차별적인 두려움 집단의 분포를 살펴보면, '만성적 두려움 집단(Fear)'은 전체에서 약 4.6%(611)를 차지하고, '일상적 조심성의 집단(Cautious)'은 약 14.1%(1873)에 이르고, 전체의 약 81.3%(10791)은 '두려움이 낮은 집단(No Fear)'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의 두려움과 관련된 담론에 비하면 의외라 할 수 있다. 담론 수준에서 범죄의 두려움은 매우 광범위하고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개인들이 느끼는 구체적 두려움의 수준은 그보다 현저히 낮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만연해 보이는 범죄의 두려움은 어떻게 표현될까?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보이는 범죄의 두려움은 내가 아닌 나와 가까운 누군가를 대상화해서 표현되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나와 가까운 이들로 확대되는 두려움에 대한 이해는 우리 사회의 범죄 두려움 광풍을 이해하는데 시작점이 될 수 있다.

Ⅲ. Context 2: 가족으로 확대되는 두려움 - 대리적 두려움(vicarious fear)⁴⁾

1. 범죄피해의 두려움: 개인적(personal fear) vs. 대리 두려움(vicarious fear)

여러 흉악범죄들로 인해 범죄의 두려움이 증폭된 현재 상황에서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연구는 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한국사회에 범죄가 만연하여 개인들이 범죄에 취약하다고 느끼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그 두려움은 과연 어떠한 두려움이며 어떠한 매커니즘으로 발현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하는데 있어, 타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려움을 간과한다면, 범죄피해의 두려움에 대한 이해가 일반 대중의 삶의 경험과 괴리되어질 수도 있다(김지선, 2004). 즉, '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걱정되는 것'과 '내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 등과 같은 타자가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걱정되는 것'과는 두려움의 반응과 원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의 삶에 근거한 범죄 두려움 연구를 위해서는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대상에 따라 세분화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세분화된 두려움의 유형에 따라 각각의 두려움을 발생시키는 원인과 반응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려움을 느끼는 준거기준에 따르면, 범죄피해의 두려움에 대한 일반적·개인적 구분은 내가 피해당할 것을 걱정하는 것과 내가 아닌 타자들이 당할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적 두려움과

4) 2016년 범죄피해조사(KCVS: Korean Crime Victim Survey)자료 사용.

타인을 대상화한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것이 나 자신에 속한 것인가 혹은 다른 이에 대한 것이냐에 따라 개인적 두려움(personal fear)과 이타적 두려움(altruistic fear)로 개념화하기도 한다(Warr, 1992).

스네커(Snedker, 2006)는 타자를 대상화한 사람들의 두려움이 항상 이타적이고 박애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때문에, 스네커(Snedker, 2006)는 '대리 두려움(vicarious fear)'이 타자를 대상으로 느끼게 되는 범죄피해의 두려움이란 감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포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스네커(Snedker, 2006)는 다른 이들을 대상화한 두려움을 대상(object)과 행위(behavior)의 차원을 적용하여 네 가지의 이상형(ideal type)을 제시하였다. 다른 이들을 대상화한 대리 두려움(vicarious fear)은 1) 친족 기반의 이타적 두려움(Kinship-based altruistic fear), 2) 친족 기반의 대리 두려움(Kinship-based vicarious fear), 3) 일반적인 이타적 두려움(General altruistic fear), 그리고 4) 일반적인 대리 두려움(General vicarious fear)로 구분되어진다(〈표 9〉).

〈표 9〉 다른 이들(others)을 대상으로 하는 두려움 유형

		대상(Object)	
		가족(Family)	非가족(Nonfamily)
행 동 양 식 (Behavior)	행위(Action)	친족 기반의 이타적 두려움 (Kinship-based altruistic fear)	일반적인 이타적 두려움 (General altruistic fear)
	무위(Inaction)	친족 기반의 대리 두려움 (Kinship-based vicarious fear)	일반적인 대리 두려움 (General vicarious fear)

출처: Snedker(2006)

다른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두려움의 이상형적 유형(〈표 9〉)에 따르면, 대상이 가족과 친족을 대상으로 하느냐 혹은 그 외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느냐로 구분되고, 그러한 두려움이 이타적(altruistic)이나 혹은 대리적(vicarious)이나의 구분은 두려움이 어떠한 사회적 행위를 동반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Snedker, 2006). 요약하면, 대리적 두려움(vicarious fear)은 어떠한 사회적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정서적 두려움으로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는 것' 혹은 같은 (친족) 대리 두려움과 '동네에 사는 독거 노인의 범죄피해나 안전을 걱정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 대리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2. 분석방법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 두려움과 타인을 대상화하는 대리적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한 개인적 요인들과 사회/지역적 요인들에 의해서 유사하게 혹은 상이하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분석은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model)을 통해서 분석한다. 다양한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응답들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비교를 통해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이성, 유사성, 그리고 상대적 중요성 등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 종속변인에 포함된 응답항목은 세 개로 구성되는데, '두려워 안함', '보통', 그리고 '두려움'

이다. 두 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된 종속변인의 경우, 다항로짓모형은 다음과 같이 모든 조합의 확률과 관측오차를 추정할 수 있다.

$$\ln \frac{\Pr(\text{두려움}|X)}{\Pr(\text{보통}|X)} = \beta_{0,PM} + \beta_{1,PM} \text{독립변인} \dots$$

$$\ln \frac{\Pr(\text{두렵지 않음}|X)}{\Pr(\text{보통}|X)} = \beta_{0,PM} + \beta_{1,PM} \text{독립변인} \dots$$

$$\ln \frac{\Pr(\text{두려움}|X)}{\Pr(\text{보통}|X)} - \ln \frac{\Pr(\text{두렵지 않음}|X)}{\Pr(\text{보통}|X)} = \ln \frac{\Pr(\text{두려움}|X)}{\Pr(\text{두렵지 않음}|X)}$$

결과적으로, 다항로짓모형은 J-1개(종속변인의 항목-1)의 이항로짓모형을 통해서 각각의 확률과 관측오차를 추정한다. 다항로짓모형은 본 분석의 종속변인과 같이 하나의 서열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응답에서 각 응답별 비교를 위한 가장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3.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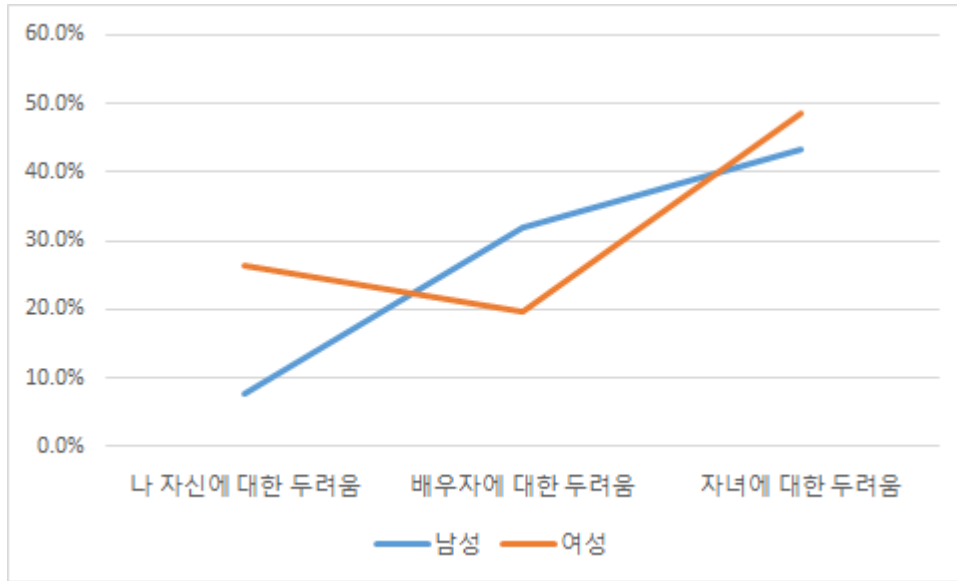
1) 개인적 특성(성, 연령 등)과 개인적 vs. 대리적 두려움의 관계

<표 10> 두려움(개인적, 친족 기반 대리 두려움, 일반적 대리 두려움)과 성별과의 관계

	자신에 대한 두려움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두렵지 않음	4643 74.7%	3271 46.4%	7914 59.6%	1765 39.2%	2435 52.8%	4200 46.1%	1096 27.9%	1111 23.1%	2207 25.3%
보통	1090 17.5%	1933 27.4%	3023 22.8%	1299 28.8%	1267 27.5%	2566 28.2%	1136 28.9%	1364 28.4%	2500 28.6%
두려움	486 7.8%	1852 26.2%	2338 17.6%	1441 32.0%	906 19.7%	2347 25.8%	1700 43.2%	2330 48.5%	4030 46.1%
계	6219 100.0%	7056 100.0%	13275 100.0%	4505 100.0%	4608 100.0%	9113 100.0%	3932 100.0%	4805 100.0%	8737 100.0%
	$X^2=1223.124 ***$			$X^2=228.099 ***$			$X^2=32.476 ***$		

성별과 각 두려움을 교차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 두려움의 수준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하게 구별되는 관계를 보여준다($X^2=1223.124$, $p<.001$). 전반적으로, 여성의 약 26.2%는 두렵다고 응답하는데 반해서 남성은 약 7.8%만이 자기 자신에 대한 범죄피해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응답한다(<표 10>). 반면에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에 대한 두려움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남녀별 응답은 남녀 모두 배우자의 안위에 대해서 남자의 약 32.0%가 두렵다고 응답한데 반해서 여성은 약 19.7%만이 배우자의 범죄피해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여자의 경우 걱정한다는 응답이 약 48.5%로 남자에 비해서 약간 높지만,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두 가지의 대리 두려움에 대한 남녀별 응답의 양상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범죄피해의 두려움에 있어서는 응답이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



[그림 5] 각 두려움에 대한 남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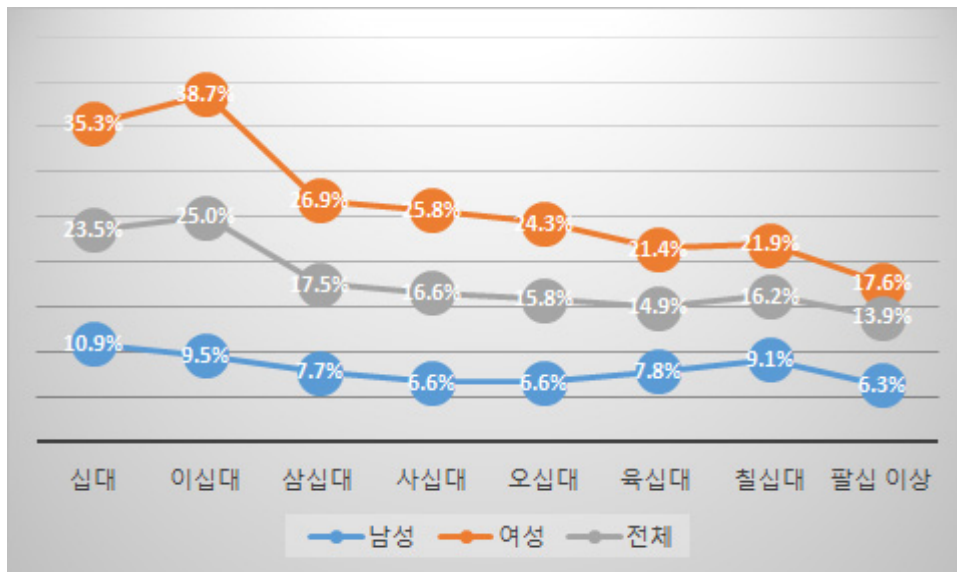
<표 11> 자신에 대한 두려움과 성별·연령별 관계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	연령								계	
	십대	이십대	삼십대	사십대	오십대	육십대	칠십대	팔십 이상		
남성	두렵지 않음	255 63.3%	566 73.9%	694 76.3%	845 76.2%	950 75.5%	723 77.9%	457 71.6%	153 73.9%	4643 74.7%
	보통	104 25.8%	127 16.6%	146 16.0%	191 17.2%	225 17.9%	133 14.3%	123 19.3%	41 19.8%	1090 17.5%
	두려움	44 10.9%	73 9.5%	70 7.7%	73 6.6%	83 6.6%	72 7.8%	58 9.1%	13 6.3%	486 7.8%
	계	403	766	910	1109	1258	928	638	207	6219
여성	두렵지 않음	130 30.2%	282 32.6%	397 41.7%	532 44.0%	679 49.8%	553 54.2%	436 55.0%	262 62.2%	3271 46.4%
	보통	148 34.4%	248 28.7%	300 31.5%	366 30.2%	354 26.0%	249 24.4%	183 23.1%	85 20.2%	1933 27.4%
	두려움	152 35.3%	334 38.7%	256 26.9%	312 25.8%	331 24.3%	219 21.4%	174 21.9%	74 17.6%	1852 26.2%
	계	430	864	953	1210	1364	1021	793	421	7056

$X^2=184.600$ ***

연령과 성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 두려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표 11). 전체적으로, 남녀별 차이는 전 연령대에 걸쳐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걱정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게 형성되어 나타난다. 성별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십대부터 칠십대 이상까지 '두려움'의 비율은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는 일정한 응답 패턴을 드러내기보다는 특정 연령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보다 높은 비율의 두려움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6]은 이러한 성별과 연령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개인적 두려움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남성의 경우 개인적 두려움은 전 연령대에 걸쳐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되다 칠십대 이상의 고령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반해서, 여성은 젊은 연령대일수록 높은 개인적 두려움을 나타내지만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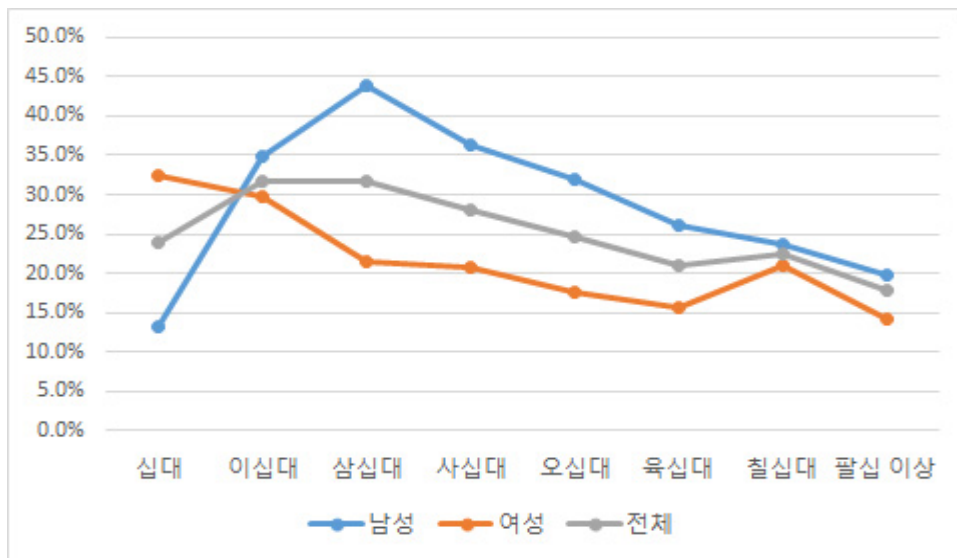
[그림 6]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과 연령

<표 12>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과 성별·연령별 관계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	연령								계	
	십대	이십대	삼십대	사십대	오십대	육십대	칠십대	팔십 이상		
남성	두렵지 않음	18 60.0%	80 44.9%	199 31.1%	329 34.2%	429 38.0%	372 44.2%	250 45.3%	88 51.2%	1765 39.2%
	보통	8 26.7%	36 20.2%	160 25.0%	284 29.6%	340 30.1%	250 29.7%	171 31.0%	50 29.1%	1299 28.8%
	두려움	4 13.3%	62 34.8%	281 43.9%	348 36.2%	361 31.9%	220 26.1%	131 23.7%	34 19.8%	1441 32.0%
	계	30	178	640	961	1130	842	552	172	4505
여성	두렵지 않음	16 43.2%	117 45.7%	374 49.1%	555 51.6%	638 55.2%	451 56.0%	231 53.5%	53 62.4%	2435 52.8%
	보통	9 24.3%	63 24.6%	224 29.4%	298 27.7%	315 27.3%	228 28.3%	110 25.5%	20 23.5%	1267 27.5%
	두려움	12 32.4%	76 29.7%	163 21.4%	223 20.7%	202 17.5%	127 15.8%	91 21.1%	12 14.1%	906 19.7%
	계	37	256	761	1076	1155	806	432	85	4608

$X^2=83.755$ ***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과 성별·연령별 관계를 살펴보면(〈표 12〉), 몇 가지 흥미로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남녀별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차별적인 경향성을 보여준다. 연령대별로 보면, 남성에게는 특정한 연령대가 가장 높은 비율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의 삼십대와 사십대는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 높은 비율로 걱정하고 있는 응답형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연령대와 결부된 사회적 역할과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 대다수의 삼·사십대가 배우자가 있는 연령대라고 할 때, 이러한 결과는 보호가 필요한 가족의 유무와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이 가지는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다른 형태를 보여주는데, 여성의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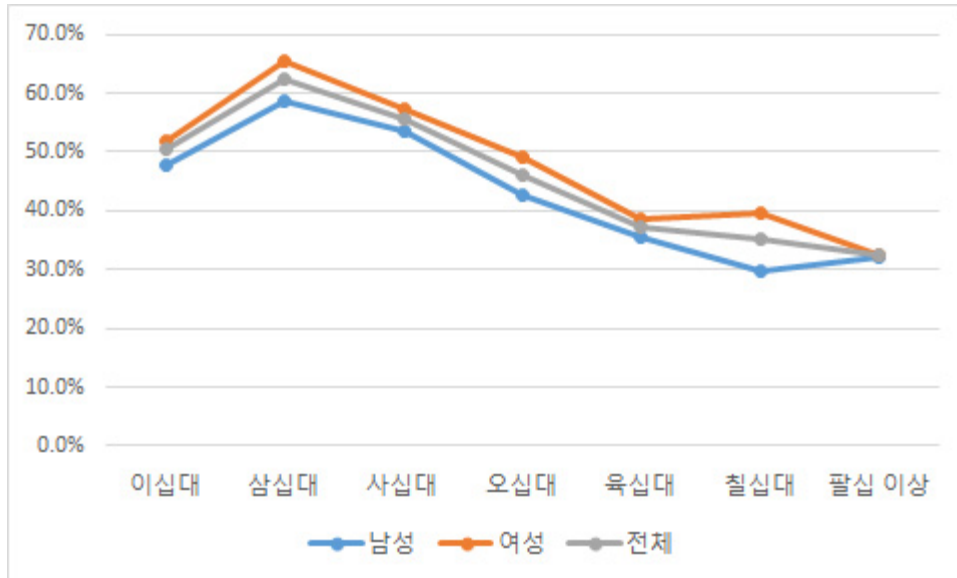
[그림 7] 대리 두려움(친족)과 연령

〈표 13〉 자녀에 대한 두려움과 성별·연령별 관계

자녀에 대한 두려움	연령							계	
	이십대	삼십대	사십대	오십대	육십대	칠십대	팔십 이상		
남성	두렵지 않음	4 19.0%	74 17.0%	191 21.5%	318 29.3%	270 34.6%	184 33.5%	55 31.4%	1096 27.9%
	보통	7 33.3%	106 24.3%	221 24.9%	303 28.0%	234 30.0%	201 36.6%	64 36.6%	1136 28.9%
	두려움	10 47.6%	256 58.7%	475 53.6%	463 42.7%	276 35.4%	164 29.9%	56 32.0%	1700 43.2%
	계	21	436	887	1084	780	549	175	3932
여성	두렵지 않음	12 21.4%	87 14.6%	190 18.2%	287 24.0%	247 28.6%	177 26.0%	111 30.4%	1111 23.1%
	보통	15 26.8%	120 20.1%	256 24.5%	321 26.8%	282 32.7%	235 34.5%	135 37.0%	1364 28.4%
	두려움	29 51.8%	390 65.3%	599 57.3%	589 49.2%	334 38.7%	270 39.6%	119 32.6%	2330 48.5%
	계	56	597	1045	1197	863	682	365	4805

$X^2=349.153$ ***

자녀에 대한 두려움과 성별·연령별 관계를 살펴보면(〈표 13〉), 몇 가지 흥미로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남녀별 자녀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준다. 연령대별로 보면, 남녀 공히 특정한 연령대가 가장 높은 비율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별에 상관없이 삼십대와 사십대는 자녀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 높은 비율로 걱정하고 있는 응답형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연령대와 결부된 사회적 역할과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그림 8).



[그림 8] 대리 두려움(이웃)과 연령

3) 개인적 vs. 대리적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비교

〈표 14〉 다항로짓 분석: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

	$\ln\left[\frac{\text{두려움}}{\text{보통}}\right]$			$\ln\left[\frac{\text{두렵지않음}}{\text{보통}}\right]$			$\ln\left[\frac{\text{두려움}}{\text{두렵지않음}}\right]$		
	β	$\exp(\beta)$	p	β	$\exp(\beta)$	p	β	$\exp(\beta)$	p
절편	-1.668		.000	1.830		.000	-3.498		.000
성별(여성=1)	.805	2.236	.000	-1.001	.367	.000	1.806	6.086	.000
연령대	-.046	.955	.004	.089	1.093	.000	-.135	.874	.000
사회적 무질서	.062	1.064	.000	-.078	.925	.000	.141	1.151	.000
물리적 무질서	.059	1.061	.000	-.100	.905	.000	.159	1.172	.000
사회적 결속	.003	1.003	.748	.005	1.005	.510	-.002	.998	.830
자발적 참여	-.001	.999	.944	.028	1.028	.053	-.029	.971	.083
경찰 신뢰	.016	1.016	.288	.015	1.015	.196	.000	1.000	.973
N	13275								
-2LL	22713.384								

*=p<.05, **=p<.01, ***=p<.001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 두려움에 대한 다항로짓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4). 개인적 특성 변인들과 지역적 특성 변인들 중에서 몇몇의 변인들은 두려움을 높게 느끼도록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모든 항목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데, 여성일수록 '보통'보다는 '두려움'에 속할 오즈는 약 1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보통'보다 '두려워 않음'에 속할 오즈는 약 6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일수록 일관적으로 '두려워 않음'보다는 '보통'으로, '보통'보다는 '두려움'의 항목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연령대는 반대의 영향을 보이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일관적으로 '보통'보다는 '두려워 않음'으로, '두려움'보다는 '보통'의 항목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5〉 다항로짓 분석: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

	$\ln\left[\frac{\text{두려움}}{\text{보통}}\right]$			$\ln\left[\frac{\text{두렵지 않음}}{\text{보통}}\right]$			$\ln\left[\frac{\text{두려움}}{\text{두렵지 않음}}\right]$		
	β	$\exp(\beta)$	p	β	$\exp(\beta)$	p	β	$\exp(\beta)$	p
절편	-.221		.316	1.450		.000	-1.671		.000
성별(여성=1)	-.499	.607	.000	.360	1.433	.000	-.859	.424	.000
연령대	-.128	.880	.000	-.001	.999	.939	-.127	.881	.000
사회적 무질서	.031	1.032	.038	-.084	.920	.000	.115	1.122	.000
물리적 무질서	.065	1.067	.000	-.087	.917	.000	.151	1.163	.000
사회적 결속	.001	1.001	.920	.047	1.048	.000	-.046	.955	.000
자발적 참여	.045	1.046	.021	-.076	.927	.000	.121	1.128	.000
경찰 신뢰	-.003	.997	.865	-.006	.994	.653	.004	1.004	.807
N	9113								
-2LL	18245.165								

*=p<.05, **=p<.01, ***=p<.001

〈표 15〉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리 두려움에 대한 다항로짓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성별의 효과는 일관적으로 '두려움'보다는 '보통'에 '보통'보다는 '두렵지 않음'에 속할 오즈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대 그리고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은 일관적으로 '보통'보다는 '걱정함'의 항목에 속할 오즈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보다는 '걱정함'에 속할 오즈는 개인이 인지하는 사회적 무질서가 증가할수록 약 3.2%가, 물리적 무질서가 증가할수록 약 6.7%가, 비공식적 자발적 참여가 증가할수록 약 4.6%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집합효율성을 대변하고 지역성원들의 개입의지를 나타내는 비공식적 자발적 참여가 오히려 '두려움'의 비율을 높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잠재적 범죄피해에 대한 개입의 의지와 지역유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끈끈한 관계망이 때때로 간접피해경험의 파급효과(riffle effect)로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Covington and Taylor, 1991; Taylor and Hale, 1986).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리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흥미로운 변인은 연령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오직 '보통'보다는 '두려움'에 속할 오즈만 약 12% 감소하게 한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려움은 두려움보다는 보통으로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6〉 다항로지 분석: 자녀에 대한 두려움

	$\ln\left[\frac{\text{두려움}}{\text{보통}}\right]$			$\ln\left[\frac{\text{두렵지않음}}{\text{보통}}\right]$			$\ln\left[\frac{\text{두려움}}{\text{두렵지않음}}\right]$		
	β	$\exp(\beta)$	p	β	$\exp(\beta)$	p	β	$\exp(\beta)$	p
절편	.794		.000	1.116		.000	-.322		.139
성별(여성=1)	.169	1.185	.001	-.205	.814	.001	.375	1.455	.000
연령대	-.246	.782	.000	.011	1.011	.624	-.256	.774	.000
사회적 무질서	.037	1.037	.008	-.039	.962	.014	.075	1.078	.000
물리적 무질서	.056	1.058	.000	-.063	.939	.000	.119	1.126	.000
사회적 결속	-.023	.977	.006	.039	1.039	.000	-.061	.940	.000
자발적 참여	.069	1.071	.000	-.137	.872	.000	.206	1.228	.000
경찰 신뢰	.001	1.001	.940	-.004	.996	.783	.006	1.006	.712
N	8737								
-2LL	17561.487								

*=p<.05, **=p<.01, ***=p<.001

〈표 16〉은 자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다항로지분석의 결과이다. 개인적 특성 변인과 지역적 특성 변인들 중에서 연령과 사회적 결속, 그리고 경찰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은 (일반적) 대리 두려움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무질서가 높아질수록 '보통'보다는 '걱정함' 쪽으로의 오즈가 약 3.7% 증가하고, '보통'보다는 '걱정안함' 쪽으로의 오즈는 약 4% 감소한다. 무질서 관련 변인들인 사회적/물리적 무질서 변인들은 일관적으로 '보통'보다는 '걱정함'의 항목에 속할 오즈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효율성의 측면에서 지역유대의 증가와 지역의 비공식적 통제 역량의 증가는 개인들의 두려움 형성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어야 하지만, 자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다항로짓의 결과는 일반적 기대와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낸다. 즉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높아질수록 '보통'과 '걱정안함'보다는 '걱정함'의 항목에 속할 오즈가 각 3% 정도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개인들이 인지하는 지역의 비공식적 통제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보통'과 '걱정안함'보다는 '걱정함'의 항목에 속할 오즈가 각 7%와 22% 정도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발적 참여의 이러한 결과는 개인들이 평가하는 비공식적 통제가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역량으로 대변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범죄 불안을 확인하는 기제와 간접피해경험의 기제로 작동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소결

본 분석에서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만을 설명대상으로 삼았던 지금까지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대리적 두려움(vicarious fear)의 분포와 양상을 개인적 두려움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개인적 두려움과 대리적 두려움들의 비교를 위해서 본 분석은 개념적으로 대리적 두려움(vicarious fear)을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 두려움과 구분하고자 하였으며, 개인적 두려움과 대리적 두려움들의 분포 양상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개념적으로 구분된 개인적 두려움과 대리적

두려움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들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인적 두려움과 대리적 두려움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리 두려움은 우리 사회에서 훨씬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서, 개인들이 느끼는 (친족) 대리 두려움(vicarious fear of crime for family)은 다른 어떤 두려움의 형태보다 일반적이고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한국 사회를 휘몰아치는 범죄의 두려움 광풍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광범위한 사회적 범죄피해의 두려움은 그것을 추동하는 범죄가 개인들이 가족을 대상화하여 생각할 수 있는 범죄일 때, 범죄의 두려움은 대리적 두려움의 형태로 폭증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을 통해서 살펴본 두려움에 더하여,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사회적 환경은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가 가지는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지역적 환경은 우리의 느끼고 평가하는 두려움에 맥락적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범죄의 두려움을 설명하는 지역적 수준의 맥락효과(contextual effect)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IV. Context 3: 범죄에 대한 두려움: 다수준 상호작용 효과 분석⁵⁾

1. 지역적 특성과 범죄의 두려움

1) 지역사회 무질서의 상징적 신호들

지역 사회의 특성들이 개인들이 가지는 불안감, 즉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은 상식에 가깝다. 하지만, 이러한 상식적인 주장에 대한 연구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지역 무질서의 가시성 혹은 무질서의 상징들이 개인들이 가지는 위협에 대한 지각(인지)-범죄의 두려움을 왜곡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증폭시키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헌터(Hunter, 1978)는 무질서의 가시적 신호들이 실제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의 무질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시적 신호들은 실제로 일어나는 범죄보다 더 가시적이고 지역구성원들이 더 가깝게 체감할 수 있는 경험들이기 때문이다(Skogan, 1996).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적 특성을 탐구했던 많은 연구들은 무질서와 같은 상징적 신호들이 어떻게 개인들의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지를 탐구해왔다(Innes, 2004, Sampson and Raudenbush, 2004; Skogan and Maxfield, 1981; Taylor, 2001; Wilson and Kelling, 1982; Wyant, 2008). 지역사회의 상징적 신호들은 사회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회통제 역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들로 하여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보다 더 강하게 느끼게 한다. 지역의 무질서가 범죄의 두려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많은 경험적 지지를 받았다(Lewis and Salem, 1986; Taylor and Hale, 1986; Covington and Taylor, 1991; Bursik and Grasmick, 1993; Box et al., 1998; Markowitz, 2001; Robinson et al., 2003; Taylor, 2001; Wyant, 2008). 하지만, 범죄와 지역의

5) 2016년 범죄피해조사(KCVS: Korean Crime Victim Survey)자료 사용.

무질서 간의 관계는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고(Harcourt, 1998; 2001), 지역사회의 무질서가 범죄의 증가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또한 있었다(Taylor, 2000).

2)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계: 집합효율성

1980년대 사회해체이론의 설명방식을 새롭게 구현하려는 새로운 사회생태학적 시도들은 공통적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계의 정도, 지역의 비공식적 통제의 수준, 혹은 집합효율성 등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견지했다(Henry and Lukas, 2009). 이러한 측면에서, 샘슨과 윌슨(Sampson and Wilson, 1995)은 지역사회의 통제 역량의 붕괴가 범죄성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샘슨(Sampson et al., 1997)은 동료들과 이러한 논지를 더욱 확장시켰는데, 사회해체의 효과가 지역의 집합효율성에 의해서 매개되어질 수 있음을 밝혔다. 집합효율성은 지역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 청소년(아이)들의 생활에 개입하려는 의지, 그리고 공공질서의 유지 노력 등으로 구성된다(Cancino, 2005; Gibson et al., 2002). 다시 말해서, 집합효율성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비공식적 통제에 대한 상호 기대감과 지역의 거주민들 간에 존재하는 상호 신뢰와 부조를 바탕으로 하는 일종의 지역적 응집력이라고 할 수 있다(Sampson et al., 1997). 즉, 쇼와 맥케이의 사회해체이론이 통제의 현현으로써 공식적인 사회조직을 상정하였다면, 지역의 집합효율성 개념은 지역사회의 상호부조와 신뢰라는 개념을 사회통제의 한 차원으로 추가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집합효율성은 사회해체와 반대쌍이 되는 개념이고 사회자본(social capital)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Taylor, 2001).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란 측면에서, 로스와 장(Ross and Jang, 2000)은 지역 내의 비공식적 유대들이 두려움과 불신에 영향을 주는 무질서 효과를 완충한다는 것을 밝혔다. 즉, 서로 신뢰할 수 있고 공동체/지역사회의 효율성이 높으면 사람들은 위험을 낮게 인식한다. 그러나 빌라리얼과 실바(Villarreal and Silva, 2006)의 연구를 보면, 지역 사회 유대는 오히려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코빙톤과 테일러(Covington and Taylor, 1991)는 사회유대가 오히려 두려움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빌라리얼과 실바(Villarreal and Silva, 2006)는 높은 사회적 결집과 유대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즉, 지역성원들이 잦은 접촉을 통해서 범죄피해를 간접적으로 더 자주 접하기 때문에 간접피해경험의 효과를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비공식통제는 지역사회(공동체)가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행사할 수 있느냐하는 사회통제 역량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그것에 의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간접적으로 통제되는가와 관련이 있다. 버식과 그라스미크(Bursik and Grasmick, 1993)에 의하면, 개인들의 범죄의 두려움을 억제하는 기제는 그들이 느끼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역량에 달려 있다. 즉, 비공식적 통제는 지역 구성원들이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나 일탈행위를 예방하는 것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Silver and Miller, 2004). 지역사회의 거주자들이 자신의 지역사회를 통제할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의 중요성은 이제까지의 연구들에서 많이 거론되어져 왔다(Bursik, 1988; Bursik and Grasmick, 1993; Sampson and Raudenbush, 1999).

많은 선행 연구들은 비공식적 통제와 공식적 사회통제 둘 다 공히 개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한다(Gibson et al., 2002; Taylor, 2002; Renauer, 2007). 또한, 맥가렐과 동료들은(McGarrell et al., 1997)은 비공식적 통제에 대한 개인들의 인지가 범죄의 두려움을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그러한 효과가 주로 낮은 무질서 지역이나 중간 정도의 무질서를 나타내는 지역에서 조건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기도 한다. 하지만, 비공식적 통제가 범죄의 두려움에 별반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어왔다(Zhao et al., 2002). 전반적으로 많은 선행연구들은 비공식적 통제와 범죄의 두려움간의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대해서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집합효율성을 구성하는 또 다른 축은 지역 구성원들이 얼마나 상부상조하는가를 측정하는 사회적 유대/결속이라고 할 수 있다(Gibson et al., 2002; Sampson et al., 1997). 지역적 수준에서 강한 사회적 연대를 나타내는 지역사회일수록 낮은 두려움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낸다는 결과도 있지만(Taylor et al., 1984), 개인 간의 교류를 바탕으로한 사회적 결속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범죄의 두려움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못함을 보고하기도 한다(Bursik and Grasmick, 1993). 깁슨과 동료들(Gibson et al., 2002)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유대/결속이 높은 지역의 사람들은 대체로 높은 집합효율성을 나타내고 결과적으로 낮은 두려움을 지니게 된다고 보고한다.

3) 지역적 특성의 조절효과

지역구조적 특성이나 지역의 실제 범죄율, 무질서의 가시적 신호들이 범죄의 두려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효과 이외에도 지역의 효과들은 또한 개인적 수준의 효과들과 상호작용한다고 주장되어져왔다. 개인적 수준에서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개인들이 속해 있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특히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지역적 속성이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남녀 간의 차이처럼 상식적으로 인식되는 개인적 특성의 차이가 지역 수준의 특성에 따라서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역적 맥락 효과(contextual interactions)의 관점에서, 맥가렐과 동료들은(McGarrell et al., 1997) 범죄의 두려움에 있어서 개인 간의 차이의 크기가 지역의 무질서 수준에 따라 변하게 됨을 보여주었다. 지역의 무질서 수준을 고, 중, 저로 나눴으로서, 지역의 무질서 효과가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무질서의 수준이 높지 않은 지역에서는 개인적 요인의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나지만, 무질서가 높은 지역에서는 개인적 요인의 효과가 괄목할 정도로 줄어들음을 보여주었다. 국내에서 역시 많은 연구들이 지역적 특성의 상호작용과 조절효과를 살펴본 바 있다(이재영, 2011; 노성훈·조준택, 2014; 박정선·이성식, 2010).

2. 분석방법: 다층모형/위계적 회귀분석

다수준분석(Multi Level)이라 불리는 방법은 다양하게 불리지만, 자료구조의 특성을 보다 잘 표현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위계선형모델(hierarchical linear model)이 보다 적절한 표현일 수 있다(Raudenbush and Bryk, 2002).

본 분석에서는 개인수준의 변인과 지역수준의 변인을 사용하여 다층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층모형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_{ij} = \beta_{0j} + \beta_{1j}(\text{여성}) + \beta_{2j}(\text{교육수준}) + \dots + \beta_{pj}(\text{개인적특성}) + r_{ij}$$

$$\beta_{0j} = \gamma_{00} + \gamma_{01}(\text{사회적무질서}) + \gamma_{02}(\text{물리적무질서}) + \dots + \gamma_{0q}(\text{지역변인}) + u_{0j}$$

또한, 본 분석에서는 지역변인의 조절효과 또한 다수준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통제관련 변인과 관련하여서는 지역무질서, 집합효율성, 사회적 유대(결속), 그리고 비/공식 통제로 조절효과를 분석한다. 다수준분석/위계선형모델에서 지역수준과 개인수준의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분석이 가능하다. 상호작용 분석을 위한 다수준분석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_{ij} = \beta_{0j} + \beta_{1j}(\text{개인수준변인}) + r_{ij}$$

$$\beta_{0j} = \gamma_{00} + \gamma_{01}(\text{지역수준변인}) + u_{0j}$$

$$\beta_{1j} = \gamma_{10} + \gamma_{11}(\text{지역수준변인}) + u_{1j}$$

$$\vdots$$

$$Y_{ij} = \gamma_{00} + \gamma_{01}(\text{지역수준변인}) + \gamma_{10}(\text{개인수준변인}) + \gamma_{11}(\text{지역수준변인}) \times (\text{개인수준변인}) + u_{0j} + r_{ij}$$

본 분석에서는 개인적 수준의 변인들이 각 지역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그 효과가 변하는지를 다수준분석상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과연 개인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맥락에 따라 개인적 특성의 효과들(취약성, 피해경험)이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적 특성은 범주의 두려움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해서 개인적 특성의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범주의 두려움을 완충시키는 기제로도 작동할 수 있다. 만약 개인수준의 변인과 지역수준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면, 개인수준의 변인이 지역수준 변인의 수준에 따라 변하는 기울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주의 두려움이 지역적 맥락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와 개인들이 범주의 두려움을 느끼는 매커니즘에 대해서 어떠한 조절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3. 분석결과: 다층모형/위계적 회귀분석

〈표 17〉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의 기술통계

LEVEL-1 기술통계					
변인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소득 수준	13275	4.11	1.94	1	9
성(여성)	13275	0.53	0.5	0	1
연령(대)	13275	4.43	1.88	1	8
사회적 무질서	13275	6.56	2.34	3	15
물리적 무질서	13275	6.3	2.17	3	15
사회적 결속	13275	10.9	3.81	4	20
자발적 참여	13275	7.13	1.73	2	10
경찰 신뢰	13275	10.33	2.04	3	15
구체적 두려움	13275	16.85	6.1	8	40
LEVEL-2 기술통계					
변인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사회적 무질서	555	6.6	1.71	3	12.61
물리적 무질서	555	6.24	1.61	3	11.85
사회적 유대/결속	555	11.04	2.92	4	19.55
비공식통제	555	7.19	1.14	3.18	10
경찰신뢰	555	10.35	1.23	6.33	13.88
소득 이질성	555	-0.08	0.39	-0.98	0.64

구체적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지역수준의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구체적 두려움의 변량과 지역수준의 변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 두려움에 있어 지역 간 차이보다는(between effect)보다는 지역 내의 차이(within effect)에서 보다 더 큰 변량(variation)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추정된 지역수준의 효과(between effect) $\tau_{00}=17.573$ 이고 개인수준의 효과(within effect)인 $\sigma^2=9.664$ 로 나타났다(〈표 18〉).

6) $ICC = \rho = \frac{17.573}{17.573 + 9.664} = 0.472$

〈표 18〉 구체적 두려움에 대한 다층모형/위계선형 분석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고정효과(Fixed Effects)				
상수 γ_{00}	16.666 (0.182) ***	16.665 (0.156) ***	15.240 (0.186) ***	15.243 (0.155) ***
사회적 무질서 γ_{01}		0.267 (0.133) *		0.159 (0.130)
물리적 무질서 γ_{02}		1.086 (0.136) ***		1.154 (0.133) ***
사회적 유대 γ_{03}		0.422 (0.070) ***		0.456 (0.068) ***
자발적 참여 γ_{04}		-0.484 (0.169) **		-0.552 (0.165) **
경찰신뢰 γ_{05}		-0.032 (0.149)		-0.062 (0.146)
소득 이질성 γ_{06}		1.033 (0.425) *		1.194 (0.416) **
소득 수준 γ_{10}			-0.074 (0.027) **	-0.080 (0.037) *
여성 γ_{20}			2.658 (0.074) ***	2.638 (0.098) ***
연령대 γ_{30}			-0.243 (0.023) ***	-0.243 (0.029) ***
무선효과(Random Effects)				
u_{0j}	17.573***	12.570***	17.523***	11.691***
소득 이질성 u_{1j}				0.284***
여성 u_{2j}				2.327***
연령대 u_{3j}				0.161***
r_{ij}	19.664	19.665	17.731	16.125
모델 적합도(Model Fit Statistics)				
Deviance	78916.39	78748.38	77605.87	77087.77

기초모형([모델 1])에서는 하나의 고정효과만이 존재하는데, 전체에서 지역수준에서 구체적 두려움의 평균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지역수준의 변인들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다층모형 분석은 [모델 2]에 제시되어 있다. 지역 수준의 변인들 중에서 구체적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유대, 자발적 참여(비공식 통제), 그리고 지역의 소득 이질성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사회적 무질서와 구체적 두려움 간의 관계는 유의미하게 나타난다($\gamma_{01}=0.267$, $p<.05$). 지역의 사회적 무질서(γ_{01})의 고정효과는 .267로 나타난다. 즉, 지역의 평균 사회적 무질서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구체적 두려움의 평균은 약 .267 증가한다는 것이다. 물리적 무질서(γ_{02})의 고정효과는 1.086로 나타난다. 즉, 지역의 평균 물리적 무질서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구체적 두려움의 평균은 약 1.086 증가하며, 이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gamma_{02}=1.086$, $p<.001$). 지역사회의 소득이질성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데($\gamma_{06}=1.033$, $p<.05$), 지역사회 소득 이질성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구체적 두려움은 1.03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은 개인 수준의 변인들만의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한 모델이다. 개인적 수준에서 구체적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소득 수준, 성, 연령대 모두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성일수록($\gamma_{20}=2.658$, $p<.001$) 구체적 두려움의 수준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γ_{30}

=-.243, $p<.001$)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gamma_{10}=-.074$, $p<.01$), 구체적 두려움의 수준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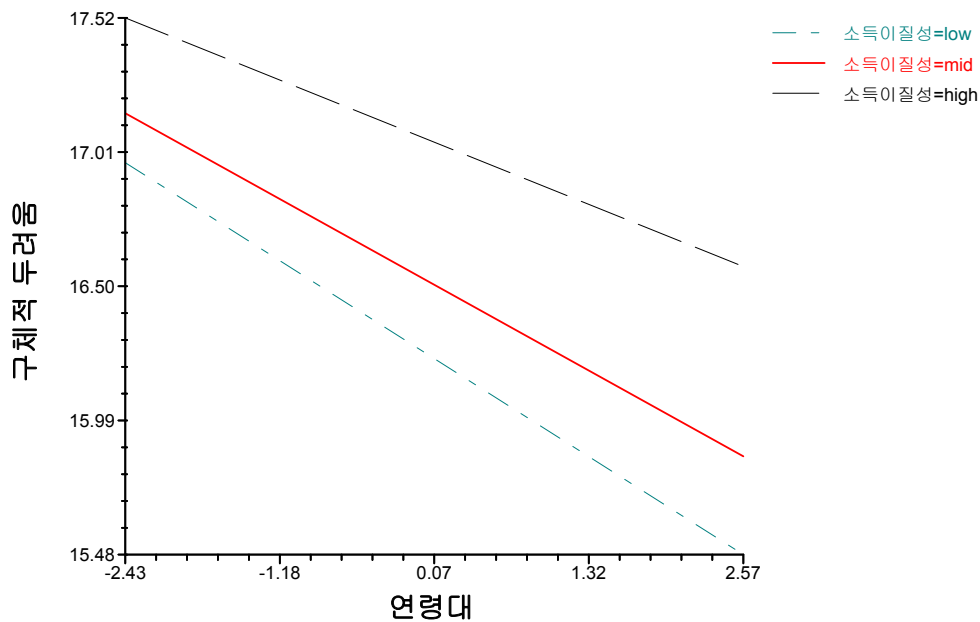
[모델 4]는 지역적 변인들과 개인 수준의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통합모델이다. <표 18>의 결과를 보면 개인수준의 변인들은 모두 [모델 3]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19> 구체적 두려움에 대한 수준 간 상호작용 분석

고정효과(Fixed Effects)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P 값
	상수 γ_{00}	15.239	0.155	98.422	0.000
	사회적 무질서 γ_{01}	0.163	0.130	1.256	0.210
	물리적 무질서 γ_{02}	1.119	0.135	8.310	0.000
	사회적 유대 γ_{03}	0.478	0.069	6.885	0.000
	자발적 참여 γ_{04}	-0.664	0.167	-3.983	0.000
	경찰신뢰 γ_{05}	-0.066	0.146	-0.451	0.652
	소득 이질성 γ_{06}	1.231	0.422	2.915	0.004
	소득 수준 γ_{10}	-0.081	0.038	-2.103	0.036
	물리적 무질서 γ_{11}	0.031	0.024	1.289	0.198
	사회적 유대 γ_{12}	-0.004	0.017	-0.220	0.826
	자발적 참여 γ_{13}	0.031	0.037	0.841	0.401
	소득 이질성 γ_{14}	-0.039	0.093	-0.423	0.672
여성 γ_{20}		2.648	0.097	27.350	0.000
	물리적 무질서 γ_{21}	0.087	0.061	1.424	0.155
	사회적 유대 γ_{22}	-0.091	0.041	-2.221	0.027
	자발적 참여 γ_{23}	0.385	0.097	3.980	0.000
	소득 이질성 γ_{24}	-0.223	0.260	-0.856	0.393
연령대 γ_{30}		-0.244	0.029	-8.277	0.000
	물리적 무질서 γ_{31}	0.024	0.019	1.270	0.205
	사회적 유대 γ_{32}	0.013	0.013	1.012	0.312
	자발적 참여 γ_{33}	0.047	0.029	1.613	0.107
	소득 이질성 γ_{34}	0.149	0.077	1.928	0.054
무선효과(Random Effects)		변량요소	자유도	카이자승	P 값
	u_{0j}	11.677	546	4848.259	0.000
	소득 수준 u_{1j}	0.282	548	923.195	0.000
	여성 u_{2j}	2.189	548	920.758	0.000
	연령대 u_{3j}	0.155	548	816.860	0.000
	r_{ij}	16.129			
모델 적합도(Model Fit Statistics)					
Deviance			77109.85 (df=11)		

지역적 변인들과 개인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9>). 즉, 지역변인과 개인변인간의 상호작용 분석은 지역적 맥락에 따라 개인요인들의 영향력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만약 개인 수준의 변인과 지역 수준의 변인 간 상호작용이 유의미하다면 개인수준의 기울기가 각 지역 변인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변인의 맥락에 따른 상호작용의 효과를 살펴보면, 연령(대)의 효과는 각 지역의 평균 사회적 유대와 방법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의 연령(대)와 지역변인의 맥락(소득의 이질성) 간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그림 9), 연령(대)의 효과는 지역사회의 맥락에 조응하여 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에 소득 이질성에 대한 반응으로 연령대의 효과는 더 강화되거나 완만해지기도 한다. 지역사회의 소득 이질성에 조응하는 연령대의 효과는 차별적이다. 소득 이질성이 높은 지역에서의 연령대의 효과는 완만해지지만, 소득 이질성이 낮은 지역에서의 연령(대)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급격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9). 범주의 두려움에 미치는 연령(대)의 효과가 부적인 것을 감안하면, 지역사회의 소득 이질성이라는 맥락은 연령대의 효과를 조절하는 맥락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림 9] 소득 이질성과 연령(대)의 효과

4. 소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하는데 있어, 개인적 차원의 설명과 지역적 차원의 설명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살펴본 결과 역시 몇몇 지역적 요인은 맥락적 조절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의 특성과 맥락은 개인적 특성의 효과를 완충하거나 증폭하는 조절적 효과를 보여주는 맥락적 효과를 보여주었다. 즉, 이러한 결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지역적 수준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는 맥락효과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McGarrell et al., 1997; Rountree and Land, 1996). 즉, 지역적 특성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이르는 개인적 특성의 영향을 조절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지역적 요인들은 개인들이 경험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개인적 발현에 차별적인 맥락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또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적 전략들이 가지는 가시적인 효과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조에 배태되어 있는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의 효과까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 사회에 배태된 불평등의 구조와 이질성의 효과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V. Context 4: 소득 불평등, 이질적 구성 그리고 범죄의 두려움⁷⁾

1. 소득 불평등, 이질적 구성, 그리고 범죄의 두려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불안을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써 측정되어져온 일반적인 두려움은 어떤 특정 위험보다는 더 폭넓게 퍼져 있는 광범위한 어떠한 것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중들의 범죄에 대한 관심은 구체적이라기 보다는 추상적이다(Garofalo and Laub, 1978; Merry, 1981; Smith, 1986; Bursik and Grasmick, 1993).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향한 대중적 감정은 개인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지역의 구조적 환경 속에 배태되어 있을 수 있으며, 그들이 가지는 삶의 불안이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관심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투영되어 나타날 수 있다(Girling et al., 2000).

불확실한 하루살이 인생을 감내해야만 하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삶은 불확실성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불확실성의 감정은 불안을 증대시킨다(Sennet, 1998). 삶에 배태되어 있는 불확실성과 불안의 증대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불확실한 현대 사회에서 전이된 불안에는 그것의 근원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사회적 소외와 사회적 불평등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즉,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적 불평등을 통한 사회적 불안을 담아내는 그릇이 될 수 있다(Bauman, 2000).

불확실성의 감정과 더불어 사회 불평등적 요소들은 사람들의 무기력감을 증대시키면서 취약성의 감정을 증폭시킬 수 있다. 다양한 사회 불평등적 요소들(소득양극화, 상대적 빈곤, 등)은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증가시켜 무기력감에 빠지게 하고 이러한 무기력감은 곧 광범위한 불안으로 나타날 수 있다. 살아가는 삶이 버겁고 삶의 불확실성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믿음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표현되는 것처럼(Farrall et al., 2009), 광범위한 사회적 불안은 전이된 불안의 형태로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

사회적 불평등은 자기강화적이고 순환적인 타자화 과정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Young, 1999). 메리(Merry, 1981)는 범죄라는 것이 이방인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두려움을 정당화하고 표현하는 하나의 관용구라 이야기하는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예측 불가능한 이방인들의 형상으로 표현된다는 것(Lupton

7) 2016년 범죄피해조사(KCVS: Korean Crime Victim Survey)자료 사용.

and Tulloch, 1999)은 이러한 형상들이 사회의 적(folk devil)으로 각인되고(Cohen, 2002)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들의 대부분은 사회적 불확실성에 기반하고, 사회적 불평등으로 조성된 구성적 이질성은 지역의 역량을 강화한다기보다는 지역적 소외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발전한다.

요약하면, 범죄 때문에 불안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범죄의 두려움은 때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그 자체라기보다는 삶의 질의 일반적인 문제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범죄의 두려움은 단순히 범죄와 관련된 개인적 특성의 발현이라기보다는 현대인의 삶에 배태된 다양한 불안의 감정이 이입되어 파생된 것일 수도 있다(Hough, 2004; Jackson, 2004; Lupton and Tulloch, 1999).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지역사회의 불평등 혹은 경제적 상황 등과 같은 현재적 삶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

2. 분석방법: 지역 사회 불평등의 측정과 회귀분석

1) 지역 사회 불안과 불평등

범죄의 두려움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적 환경과 그에 따른 사회적 불안에 배태되어 있을 수 있다는 측면(Girling et al., 2000)과 사회적 불평등이 사회적 불안의 감정을 증가시키고 결국에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Greenberg, 1986; Skogan, 1986; Taylor and Jamieson, 1998), 본 분석에서 사회적 불안을 추동하는 사회적 불평등은 지역의 소득 불평등으로 측정하였다.

기존의 소득불평등도(inequality)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로는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P90/P10 등이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모두 계층 간 소득격차 수준을 나타내주는 지표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자료 특성상, 지역의 소득 불평등은 근사변인의 형태로만 이용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소득 불평등을 변동/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이용하였다.

변동/변이계수(the coefficient of variation)는 제일 간단한 형태의 불평등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각 집단의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누어서 산출되는 값의 비교를 통해서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지역단위에서의 변동/변이 계수 값이 작다면, 개인들의 소득의 분포가 평균에 가깝고, 소득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보다 균등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변동/변이계수(the coefficient of variation)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text{변동/변이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 s.d(X) / \bar{X}$$

2) 이질적 구성의 유형: 지역의 소득 수준과 소득 불평등



[그림 10] 지역의 소득 수준과 소득 불평등의 유형화

3. 분석결과

개인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맥락에 따라 개인적 특성의 효과들이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적 특성은 범죄의 두려움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해서 개인적 특성의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범죄의 두려움을 완충시키는 기제로도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범죄의 두려움이 지역적 맥락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와 개인들이 범죄의 두려움을 느끼는 매커니즘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지역의 소득 수준과 지역의 소득 차이(불평등) 두 차원을 가지고 4개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즉, 지역의 소득수준과 지역의 소득 이질성/불평등의 정도에 따라, 하층동질, 하층이질, 상층동질, 그리고 상층이질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이 동질적이라는 의미는 소득 이질성/불평등의 정도가 낮고 소득의 측면에서 지역 구성원이 동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질적이라는 것은 지역의 소득 이질성/불평등의 수준이 높고 지역 구성원이 소득적으로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의 <표 20>은 이러한 유형으로 분류한 4개의 지역적 특성 집단에 대한 기술 통계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소득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곤 이질적인 지역의 소득 수준이 동질적인 지역보다 소득 수준이 높고, 그에 상응하여 추상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의 수준도 높게 형성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표 19〉 지역의 소득수준과 소득동질성/이질성에 따른 구분

	상층 이질	상층 동질	하층 동질	하층 이질	계
소득 수준	4.93	5.37	3.22	2.94	4.11
여성	0.52	0.52	0.54	0.55	0.53
연령대	4.15	3.80	4.71	5.06	4.43
사회적 무질서	6.40	6.20	6.61	7.01	6.56
물리적 무질서	6.51	6.28	6.15	6.25	6.30
사회적 결속	10.22	10.15	11.39	11.84	10.90
자발적 참여	7.22	6.73	7.16	7.43	7.13
경찰신뢰도	10.32	10.45	10.19	10.35	10.33
일반적 두려움	4.62	4.76	4.45	4.51	4.59
구체적 두려움	16.78	17.59	16.44	16.61	16.85
사례수	3347	3286	3328	3314	132475

〈표 20〉 이질/동질별 두려움에 대한 회귀분석

	상층이질 b 값 (s.e)	상층동질 b 값 (s.e)	하층동질 b 값 (s.e)	하층이질 b 값 (s.e)
(상수)	12.878 *** (0.771)	6.852 *** (0.763)	11.393 *** (0.796)	11.073 *** (0.821)
소득 수준	-.024 (0.049)	-.129 * (0.065)	-.017 (0.083)	.040 (0.062)
여성	2.421 *** (0.184)	2.460 *** (0.190)	2.316 *** (0.193)	3.010 *** (0.193)
연령대	-.259 *** (0.057)	-.303 *** (0.061)	-.191 ** (0.061)	-.267 *** (0.061)
사회적 무질서	.259 *** (0.051)	0.411 *** (0.056)	.392 *** (0.051)	.300 *** (0.047)
물리적 무질서	.575 *** (0.055)	0.961 *** (0.061)	0.416 *** (0.054)	.701 *** (0.051)
사회적 결속	.283 *** (0.030)	0.354 *** (0.033)	0.232 *** (0.030)	.250 *** (0.030)
자발적 참여	-.374 *** (0.059)	-.289 *** (0.059)	-.088 (0.062)	-.317 *** (0.069)
경찰신뢰도	-.170 *** (0.049)	.103 * (0.051)	-.235 *** (0.050)	-.191 *** (0.052)
R^2	.178	.297	.139	.200
사례수	3346	3285	3327	3313

이러한 차이는 각 지역별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위 〈표 21〉은 소득과 지역의 이질성에 따른 지역별 회귀분석의 결과를 나타낸다. 각 지역별 회귀분석에서 구체적 범죄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비교해보면, 오직 상층동질적인 지역에서만 소득 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층동질적인 지역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범죄 두려움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29, p < .05$). 반면에, 경찰신뢰도의 영향은 방향성의 차이를 보여준다. 대개의 경우,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수록 범죄의 두려움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만(상층이질, 하층동질, 하층

이질), 상층동질적인 지역에서 경찰의 신뢰 증가는 오히려 범죄의 두려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출동의 가시성 등이 오히려 범죄의 두려움을 높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수 있다. 자발적 참여 역시 상층이질, 상층동질, 그리고 하층이질에서만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2016년 한국범죄피해조사 데이터에서 이질적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동질적인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명확하지 않다. 즉, 소득적으로 구성된 이질성이 이방인에 대한 타자화 과정으로 표현되어 나와 다른 이들과 대면하며 취약성과 불확실성의 감정들이 두드러져 나타나는 것인지 확인할 순 없다. 하지만, 서구에서 인종적으로 다른 이들을 타자화하면서 두려움의 감정이 증폭되었던 것처럼 한국적 상황에서는 사회 계층적으로 다른 이들—경제적으로 주변화된 집단—에 대한 타자화로 이어져 결국에는 두려움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여전히 존재한다. 즉, 소득 불평등으로 대변되는 사회불안 혹은 사회불안적인 요소가 우리의 두려움을 강화하는 기제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4. 소결

본 분석의 함의는 지역적 환경의 특성에 따라 개인적 특성의 영향력들이 다르게 나타나듯이, 지역사회의 이질성/불평등 정도와 그에 따른 이질적 구성에 따라 범죄의 두려움을 느끼는 개인들의 동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이다. 즉, 지역 구성원의 소득 수준이 이질적인 공간에서 사회계층 간에 형성되는 타자화과정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한국적 공간에서 서구에서는 인종적으로 이질적인 타인들에 대해서 진행되었던 타자화의 과정이 한국적 상황에서는 사회 계층적으로 경제적으로 주변화된 집단에 대한 타자화 과정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두려움의 차이를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VI. Context 5: 사회적 불안과 범죄의 두려움⁸⁾

1. 으깨어진 중산층(squeezed middle class) 그리고 범죄의 두려움

세계적으로 후기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동은 이전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 유동성의 공포로 묘사된다 (Bauman, 2000; Sennet, 1998). 후기 자본주의에서 증가된 기회와 풍요, 그리고 선택과 자유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확산되는 불안과 공포는 단선적 발전 논리에 준거한 전망이나 대책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불확실성에 있다. 이미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자본의 발전 방향은 양극화라는 사회적 자원이나 구성원들의 이원적 편중 현상을 일으키며, 중산층 위기를 극단적으로 묘사하는 ‘으깨어진 중산층(middle class squeeze)’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8) 본 분석은 강원대학교와 한국리서치가 2014년부터 2017년 동안 총 4회에 걸쳐 진행한 ‘한국사회 갈등 실태 및 의식 조사’를 사용.

으깨어진 중산층은 물가가 치솟으면서 실질 임금은 줄고, 복지도 줄어드는 압력에 고통 받는 중산층을 말하지만, 사회 전체 인구로 봤을 때 취약한 계층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취약성(vulnerability)은 위험에 대한 노출과 그것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 그리고 위험으로 인한 손상에 대한 불안을 뜻하며, 미래에 닥칠 불행이나 부정적 결과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과 같은 일종의 정신적 상태까지도 포함한다. 이 같은 사회적 취약성은 소득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는데, 보통은 소득과 지위가 낮을 경우 자신의 삶과 상황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과 무력감이 높아지며 막연한 불안이나 범죄에 대한 공포 등이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적 취약성이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가구 소득의 증가나 학력 자본의 상승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막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원의 손실을 더 두려워하고, 자신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적 상류층은 너무 많아서, 하층은 너무 없어서 동시에 사회적 취약성이 증가하고, 이는 자신의 잠재적 피해를 가정하고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가공의 대상물들을 만들어내며 집단적 분할과 단절을 야기하게 된다. 다시 말해 상층-하층으로 인식되어온 서열적 계급관계는 중산층의 쇠퇴로 상류-하류의 단절적 형태로 바뀌고 있으며, 자본을 독점한 소수의 상류 계급과 상시적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다수의 하류 계급으로 분절되는 상황으로 변모하고 있다(김문조 등, 2015:45)

2. 불안이 투사된 추상적 범죄의 두려움

범죄에 대한 불안과 일반적인 사회적 변화들에 대한 불안 사이에는 특별한 구분이 있지 않다(Holloway and Jefferson, 2000; Gray et al., 2008). 예를 들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많은 부분이 이방인들과 대면하면서 생기게 되는 취약성과 무기력함 그리고 불확실성의 감정으로부터 나온다(Merry, 1981).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때때로 주변화된 사회 집단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정당화하고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기제로 작동하기까지 한다(Girling et al., 2000; Lee, 2007).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 불안을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두려움은 사람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파생하는 특정 위험보다는 더 폭넓게 퍼져 있는 광범위한 그 무언가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중들은 범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관심은 구체적이라기보다는 대개가 추상적이다(Garofalo and Laub, 1978; Merry, 1981; Smith, 1986; Bursik and Grasmick, 1993). 때문에, 범죄를 향한 대중적 감정은 사람들의 지역적 그리고 살아온 환경 속에 배태되어 있다(Girling et al., 2000). 주로 이질성과 유동성이 높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타자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Young, 1999). 이러한 측면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예측 불가능한 이방인들의 형상으로서 표현되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Lupton and Tulloch, 1999). 즉,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일종의 사회의 적(folk devil)으로 각인되고(Cohen, 1972), 일반화된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걱정, 두려움 그리고 불안의 대상으로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동학은 대부분 불확실성에 기반하게 된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현대인의 삶과 관련된 불안들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첫 번째로, 범죄는 복잡한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타자(others)로 남아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범죄를 저지르는 다른 이들(범죄자criminal others)은 우리의 불안이 방해 없이 투사되어지고 공격할 수 있는 전통적인 악한(惡漢bogyman)으로 나타난다. 현대 사회에서 범죄자(criminal others)는 불안을 담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Scheingold, 1995). 두 번째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담론은 실천해 옮길 수 있는 일련의 행위들을 수반하는데(시진장치를 한다거나, 자동차 알람을 한다거나 하는 것), 이러한 행위들은 사람들에게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고,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결국에는 자신의 삶 속에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일말의 통제감을 제공한다(Holloway and Jefferson, 1997; Lupton, 1999).

범죄가 이방인과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정당화하고 표현하는 하나의 관용구로 표현된다는 주장처럼(Merry, 1981), 우리는 다른 개인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렇기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할지 모른다. 때문에 사람들은 낯선 장소에 들어서면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더 두려워하게 된다. 높은 인구밀도, 이질성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유대가 감소하고 점점 더 소외와 고립이 고도화하면서, 증가된 사회적 다양성은 더 높은 사회적 불확실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현대 도시의 사람들은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며 살게 된다(Hale, 1996).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이고 도시가 제공하는 이질적 문화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하다.

사회의 암울한 경제적 미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떠한 사건들에 대해서 취약하게 느끼게 하는데, 그것이 때때로 범죄로 나타난다(Greenberg, 1986). 1990년대 영국에서 목도되었던 범죄에 대한 패닉/두려움은 급격하게 쇠락한 영국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표현이었다(Taylor and Jamieson, 1998).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경기/경제 하락에 대한 감정은(특히 취업 혹은 실업과 관련해서) 불안의 감정을 만연하게 만든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낙으로의 두려움은 당시의 급격한 경제적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였지만, 매우 쉽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농축되어졌고,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패닉/두려움의 담론에 쉽게 포섭되었다. 이렇듯,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현재의 우리 삶에 대한 은유로 나타날 수 있다.

3. 도덕적 공분의 대상으로 악마화된 '어떤 이들'과 범죄의 두려움

현대사회에서 악마화된 존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의 기준에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여겨지는 이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가진 속성에 비해 사회는 이들에 대해 극단적으로 과잉 반응하고, 이들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수록 악마화된 존재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기보다는 편견이 더욱 공고화된다. 물론, 이러한 공포를 만들어내는데 있어 미디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악마화된 존재의 생성과 창조는 미디어의 자극적 논의에 의해서 사회에서 악마를 몰아내기보다는 오히려 공고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지속적인 언론 보도는 악마화된 존재에 이름을 붙이고 설명하는 경향이 있으며, 악마화된 존재를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고 보여줄 수 있다.

코헨(1972; 2002)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두려움을 '도덕적 패닉(moral panic)'이라 칭한다. 사회

의 적(folk devils)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두려움을 반영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악마화된 존재로서 사회의 적(folk devils)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공황을 만들어낸다. 도덕적 공황은 특정 악마화된 존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감, 비난, 비판의 또 다른 표현이다.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적으로 규정되고 도덕적 공황을 일으키는 특정한 존재는 단순한 흑백 논리로 평가할 수 없는 복잡성을 띠기도 한다. 언론을 포함한 사회적 반응은 사회악 혹은 사회의 적에 대해서 악당일 수 밖에 없는 악마화된 존재를 만들어낸다(Cohen, 1972: 2002).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이러한 악마화된 존재는 변화하며 창조된 악마화된 존재는 도덕적 공황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원한 등의 감정 등은 대표적인 도덕적 패닉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도덕적 패닉은 곧 그렇게 악마화된 대상에 대한 사회적 반응으로 이행되곤 한다.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이 사회를 위협에 빠뜨리는 존재, '사회악(folk devil)'으로 간주되기 시작하고, 언론은 이들에 대한 악마화된 이미지를 통해 도덕적 패닉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럴패닉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고조된 대중 감정에 기반하여 사회 정의라는 이름 하에서 엄벌주의 정책을 도입, 실행하게 된다(Cohen, 1972).

범죄에 대한 도덕적 패닉(moral panic)은 다섯 단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Cohen, 1972: 2002), 첫 번째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는 사회 규범 및 공동체 또는 사회 전체의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정의된다. 두 번째로 언론 매체와 사회 구성원은 단순하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위협을 묘사하여 대중에게 쉽게 인식 될 수 있게 한다. 세 번째로 널리 퍼진 대중의 관심은 뉴스 매체가 위협의 상징적인 표현을 묘사하는 방식에 의해 촉발되고, 대중의 관심이 급속하게 증가한다. 네 번째로 제기된 사안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등장한다. 당국과 정책 입안자는 새로운 법이나 정책으로 위협과 위협에 대처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주류와 구성원들이 가지는 도덕적 패닉은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온다. 사회적 패닉은 사회적 변화를 낳기도 하지만 대중적 관심이 희미해져 사라지기도 한다.

현대사회의 도덕적 패닉은 각 사회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위협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포섭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난을 비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는 복지충(蟲, Welfare Queens), AIDS 등 질병과 관련된 게이 아젠다, 이슬람 혐오 등의 등장을 목격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도덕적 패닉은 과거와 달리 피해에 대한 위협 인식과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도덕적 패닉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도덕적 패닉의 주된 요소로 간주한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모럴패닉/도덕적 공황은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강조하는 후기 근대사회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온갖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후기 근대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위험'에 처해 있다는 담론은 보다 더 확산되었다. '위험한 자'들을 공간적으로 격리시키고 '무용한 자'들을 사회적으로 추방하기 위해 등장한 배제의 기술들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게 향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한국사회에서 도덕적 공분의 대상은 누구이며, 어떠한 논리로 이들은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4. 범죄에 대한 추상적 두려움과 타자에 대한 혐오, 차별 혹은 불인정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구체적인 대상이 아닌 사회적 변화들에 대한 불안의 반영이다(Holloway and Jefferson, 2000; Gray et al., 2008).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특정의 범죄 피해에 대한 걱정인 '구체적인 두려움'과 막연한 피해에 대한 걱정인 '추상적 두려움'으로 구분된다. 또 추상적 두려움은 내가 피해를 당할 것을 걱정하는 '개인적 두려움'과 내가 아닌 배우자, 자녀, 친척이 피해를 당할 것을 걱정하는 '대리 두려움'으로 세분화된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특정의 대상이 아닌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삶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간주되는 대상을 적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없애버림으로써 자기 삶의 통제감을 확보하고자 한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곧 표준,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여겨지는 소수자/마이너리티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불안과 범죄 두려움이 소수자/마이너리티 인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보면, 불안과 두려움은 마이너리티에 대한 불인정, 즉 차별의 주요인인 것은 명확해 보인다.

〈표 21〉 불안 및 범죄 두려움과 마이너리티 인정 수준과의 관계

구 분		빈곤집단	비혼집단	중독집단	열등집단	취향집단
불안	개인불안	(+)	(+)	(-)	(+)	(+)
	구조불안	(-)	(-)	(-)	(-)	(-)
범죄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	(-)	(-)	(-)	
	본인 두려움	(-)	(-)	(-)	(-)	(-)
	배우자(애인) 두려움					
	자녀 두려움	(+)	(+)	(+)	(+)	(+)

불안을 개인 불안과 구조 불안으로 구분하였을 때, 사회구조적 불안이 소수자/마이너리티 인정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개인적 불안은 중독 집단에 대한 인정 수준에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개인의 일자리나 결혼, 생계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범죄나 전쟁의 위험이나 환경오염, 사회로부터 고립과 같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구조적 수준의 불안이 소수자/마이너리티에 대한 차별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범죄에 대한 구체적 두려움과 추상적 두려움은 모두 소수자/마이너리티 인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앞서 구체적 두려움보다는 추상적 두려움이 마이너리티 차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려움을 본인 두려움과 대리 두려움으로 구분하였을 때, 본인의 범죄 피해 두려움이 높을 때 소수자/마이너리티에 대한 차별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의 안위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두려움은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소수자/마이너리티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차별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신과 다른 이질적 대상과 경계선을 긋고 마이너리티로 규정하고 차별을 실천하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한 자기 보존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으로 인해 개인의 취약성이 증가하면 불안과 두려움의 수준이 높아지고, 이는 곧 마이너리티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본인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추상적인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VII. 결론

본고에서는 한국사회에서 범죄의 두려움이 가지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배경을 검토해보고자 했다. 잠재집단의 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만성적 두려움을 겪는 집단에 속하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특성이 어떠한지 그 맥락을 살펴보았다. 잠재집단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차별적인 두려움 집단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에서 약 4.6%(611)만이 '만성적 두려움 집단(Fear)'으로 나타났다. 답론 수준에서 범죄의 두려움은 매우 광범위하고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개인들이 느끼는 구체적 두려움의 수준은 그보다 현저히 낮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 등으로 확대되는 대리적 두려움의 형태로 살펴본 범죄의 두려움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개인적 두려움과 대리적 두려움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리 두려움이 우리 사회에서 훨씬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서, 범죄의 두려움에서 개인들이 느끼는 대리 두려움(vicarious fear of crime for family)은 다른 어떤 두려움의 형태보다 일반적이고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성별에 따라 개인적 두려움과 (일반적) 대리 두려움의 양상은 일정한 성차를 유지하기도 하고 동일한 형태로 혹은 차별적인 형태를 띠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연령대에 속한 개인의 사회적 역할과 사회적 위치가 특정대상에 대한 보호와 불안의 심리를 증폭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때때로 대리 두려움은 일종의 부/모성애적(parental fear for children) 두려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의 두려움이 가지는 개념적 다차원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과 개인이 인지하는 지역적 특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변인들-예를 들면, 사회적 불안과 불확실성 등-을 포섭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범죄가 사회적 진공상태에서 나타나지 않듯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 사회에서 탈맥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광범위하게 증폭되어 나타나는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세밀한 이해를 위해서는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세밀한 개념 구성과 더불어 개인들의 삶에 대한 믿음과 사회상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살펴본 다수준 상호작용 효과 분석에서는 개인적 특성의 효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역적 특성들과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즉, 개인적 차원의 설명과 지역적 차원의 설명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고 몇몇 지역적 요인은 맥락적 조절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지역특성변인들은 개인들이 경험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개인적 발현에 차별적인 맥락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개인들이 느끼는 범죄의 두려움이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에 배태되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본 사회적 불평등과 범죄의 두려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소득 불평등은 두려움의 수준에 일정부분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또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소득 수준이 보다 이질적인 지역에서 계층 간에 일종의 타자화 과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역적 환경의 특성에 따라 개인적 특성의 영향력들이 다르게 나타나듯이, 지역사회의 불평등 정도와 그에 따른 이질적 구성에 따라 범죄의 두려움을 느끼는 개인들의 동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죄의 두려움은 사회적 불안에 대한 대중들의 일반화된 해석의 형태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불안과 범죄의 두려움 그리고 차별, 혐오, 인정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만약 범죄의 두려움이 사회적 불안정성(혹은 안정성)이 발현되어 나타나는 것이라면, 개인들의 범죄의 두려움은 사회적 변화들에 대한 불안일 수 있고 범죄의 두려움은 다른 이들에 대한 혐오,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즉, 한국사회에서 높은 수준의 불안과 사회적 두려움은 다른 이들에 대한 불인정 혹은 차별의 토양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참고문헌 (생략)